朝鮮日報
第二夕刊
二十九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新政權樹立明日로迫頭
帝國政府劃期的聲明
卅日石渡書記官長發表

【東京電話同盟】帝國政府는 國民政府의 成立을 慶祝하여 東亞新紀元의 確立을 中外에 宣明하기 爲하여 三十日夕刻 政府聲明을 公表하기로 決定하고 石渡書記官長의 手許에서 그 案文을 調整中이엇는데 今曉脫稿되엇스므로 二十九日의 定例閣議席上에 石渡翰長으로부터 右草案을 提示說明 閣議決定을 보앗다 따러서 米內首相은 同日午後宮中의 御形便을 伺하여 參內上奏 御裁可를 仰할려이다 그런데 이聲明의 骨子는 第一段에서 新中央政府의 敎化育成을 積極的으로 支援協力하고 帝國政府의 不退轉의 決意를 率直히 表明하고 第二段에서 新中央政府及東亞新事態에 對한 第三國의 새로운 認識을 要求하고 다시 支那一般民衆에 對하여 東亞永遠의 平和에 協力을 要望하는것이다 今次 帝國政府의 聲明은 支那事變處理에 關聯하는 近衛聲明以來의 重大聲明이라하여 中外에 미칠 重大影響은 劃期的일것으로서 매우 重視되고잇다 (寫眞은 石渡書記官長)

阿部特派大使
親任式四月一日

【東京電話同盟】支那新中央政權成立에 際하여 我帝國政府로부터 特派될 特命全權大使 阿部信行大將의 親任式은 宮中의 形便을 伺하여 四月一日 米內首相侍立下에 執行되기로되엇다

物價對策委員會
委員二十九日決定

【東京電話同盟】새로 內閣에 設置될 物價對策審議會는 지난二十日 官制案이 樞府에서 可決되엇스므로 政府는 民間側委員을 銓衡하고잇던바 政黨側委員의 銓衡에 關하여 政民三派各一名式 配當에 對하여 民政黨側이 異論을 提出하여 一時停頓狀態에잇섯는데 問題가 國民生活과 密接한 關聯가잇고 또刻下의 急務인 經濟問題이므로 在再時日을 보냄을 不許하는바 여러가지로 考慮한結果 政府는 드디어 一步讓步하여 二十八日 三長官中에서 廣瀨法制局長官을 빼고 그 代身 勝遞相을 너키로하고 小川鄕太郞氏에 交涉한結果 同夜小川氏로부터 受諾回答을 어덧스므로 二十九日의 閣議에 附議決定한後 三十日열리는 最後의中央物價委員會를 기다려 來月一日正式發令하여 首相의 新任奉告歸京後의 五日에 第一回總會를 開催하여 新機構下에 戰時經濟完遂에 邁進하기로되엇다 그리고 幹事人選에 關하여는 目下企畫院에서 銓衡하고잇는바 이部門은 近近決定될豫定이다 決定된 委員은如左하다

▲會長 米內首相
▲政府側委員 櫻內藏相 島田農相 藤原商相 勝遞相 小磯拓相 吉田厚相 石渡書記官長 竹內企畫院總裁
▲民間側委員 中央物價委員會會長 池田成彬 日本經濟聯盟會長 男爵 鄕誠之助 日銀總裁 結城豊太郞
日鐵會長 平生釟三郞 日本工業俱樂部理事長 井坂孝 產組中金理事長 石黑忠篤 住友總理事 小倉正恒
北支開發會社總裁 賀屋興宣 貴族院議員 下村宏 衆議院議員(民) 小川鄕太郞 同(政中) 堀切善兵衛 同(政久) 大口喜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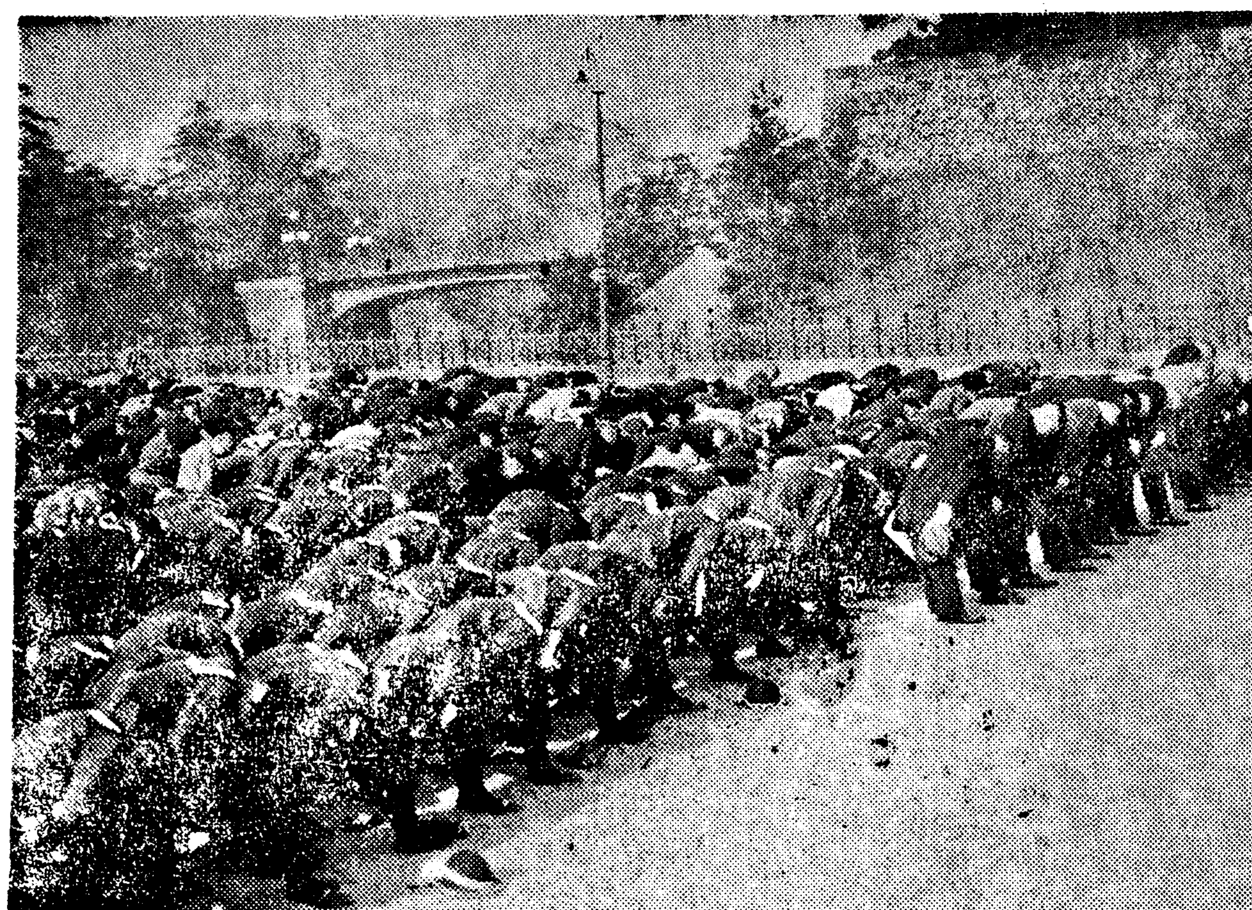
南總督, 汪氏에 "멧세이지"

半島의 聯報를 실고 支那新政府成立祝賀를 爲하여 南京으로 날러간『翼林號』는 南總督으로부터 附託받고 遂行한 汪精衛氏에 對한 다음가튼 멧세이지를 三十日 光輝잇는 成立式에 贈呈하기로되엇다

東洋人의 東洋을 建設하여 恒久平和 確保를 期하는 重要한때에 當하여 閣下가 挺身하여 和平救國의 大事業을 擔當하여 新中央政府를 組織한 偉績에 對하여 滿腔의 敬意를 表한다 天의時 地의利에 加하여 人의和의 敦篤함을 어든 貴政府의 前途는 燦爛한光明에 차고 共同興亞의 大業을 成就할것을 疑心치안는바이다 玆에 飛行機總士 頭項君이 京城으로부터 貴地에 祝賀訪問飛行을 決行하는데 委託하여 深厚한祝意를 表하고 아울러 閣下의 御健康을 빕니다

周恩來歸來

廿日 莫斯科發UP通信에依하면 三個月前莫斯科에到着한 中國共產黨領袖 周恩來는 莫斯科에서 治療中이엇는데 廿日蘭州에到着, 延安을經由하여 重慶에 오기로되엇는데 國共關係에 對한 周恩來의行動은 크게注目된다



◇…社頭對面兒童의皇居遙拜(二重橋前)…◇

英佛最高戰時會議
提携再確認과戰爭目的達成强調
二十八日極秘密裡에會談

【倫敦二十八日發同盟】레이노首相以下佛國代表團을마지한第六次英佛戰時最高會議는 二十八日午前午後二回에 亘하여 倫敦英首相官邸에서 極秘裡에 開催되엇다 英佛首相은 兩國의 緊密한提携를 再確認하는同時에 戰爭目的의達成을爲하여 어데까지戰爭을 遂行할 强固한決意를 闡明하엿다 會議에는 佛國側은 레이노首相, 깜팡키海相, 로랑에이낙空航相, 콜방駐英大使, 레제外務次官及감랭國軍總司令, 다란海軍總司令, 위유맹空軍總司令(달라디에國防相은病으로欠席) 英國側은 쳄벌렌首相, 할리팍스外相, 쳐칠海相, 스탠리陸相, 윙드空相, 카도간外務次官, 슈보로空軍總司令, 파운드海軍軍令部長, 아이언사이드陸軍總司令이 出席하엿다 그리고佛國代表는 二十八日午後巴里로 向하여歸還하엿다(寫眞上은 쳄벌렌英首相 下 레이노佛首相)

英佛會談意義

【倫敦二十八日同盟】英佛最高會議의 共同宣言은 戰爭開始以來 前後六回열린會議의가장 重要한 成果로 兩國政府가 共同目的을 達成하기까지는 從前에倍加한勢力을 傾倒하여 戰爭을 遂行할決意를 闡明한것이다 會議의經過는 曖昧에附하고잇는데 大明하건데 討議는 外交, 軍事의 各方面에 亘한것으로想像되는가 그리고外交方面當局의 問題로서는 먼저 蘇芬和平成立의 스칸디나비아諸國及 발칸方面의 新情勢檢討特히 獨逸이 全勢力을 傾倒하여 中歐諸國의 政治的, 經濟的 制壓을 試하고잇는 事態를 硏究하는 同時에 香港에서의 蘇聯船舶抑留事件에 伴하는 英佛兩國對蘇聯關係도 討議된것으로 보인다

諾威政府 獨潛水艦拿捕

【倫敦二十八日發同盟】로이터通信에依하면 諾威政府當局은 지난二十六日夜 諾威베스타쾌르州 라비크近海(北東方의 岩礁地帶 諾威領海內)에서 坐礁한獨潛水艦 루-二十一號를 抑留하엿다고한다

米,歐洲和平에悲觀
웰스特使活動期待薄弱

【華盛頓二十八日發同盟】웰스特使歸國에際하여 米國의 觀測者는 그의 한일이 國內的으로나 國際的으로나 米國에對하여 利益보다는不利益을 가저온것이나 아닌가하는 印象을주고잇다 루즈벨트派의人物들은 웰스氏의渡歐가 루大統領의 國內人氣를 노필것이라는希望을 가지고잇섯스나 그들조차 웰스氏의 歐洲에서의成績에는 失望을 느끼고잇다 獨逸과 伊太利는 모두 웰스氏에 對하여『萬若 至今 루大統領이 和平斡旋을 하지안는다면 近은다』라는 印象을 주기에努力하엿다 一方그러한印象에 劇的效果를 주려고 히틀러, 뭇솔리니兩氏의 브렌넬會見은 演出되엇스며 所謂獨逸의 和平條件이 웰스氏의 羅馬出發을압두고 理由모르게 喧傳되엇섯다 卽獨逸은和平을 希望하는것은 事實이다 웨그러냐하면 獨逸이 至今 和平이 成立되면 獨逸에 對하여 大勝利가될것이고 伊太利로서는 英國의 封鎖强化는 必然的으로 伊太利에 重大한 經濟的困難을주게되는까닭이다 그러나 英佛側은 現在의 情勢로보아 平和討議은 目下 不可能하지안다 그것은 自獨逸의 不名譽한 敗北의 承認을意味하는것이므로서이다 웰스氏의 使命은『事實探求』에 잇다하나實은『和平打診』이엇다 이意味에서 웰스特使의 行動은 英佛側에 對하여 조치못한影響을주엇다 卽一時的이나마 그들以府當局者가 勝利를 爲하여 戰爭에邁進하고잇는 國民의 士氣에 惡影響을 준때문이다 所謂獨逸의和平條件이 羅馬에서喧傳되엇슬時英佛各紙는 明白히當該政府의 示唆에依하여英佛은 米國에 獨逸의誠實을 保障한다면 獨逸側의和平條件을 考慮하여도조타고 宣傳하엿다 이英佛側의宣傳은 루스벨트派에 큰 衝擊을 주엇다 卽이런 宣傳은 米國의 孤立主義派의 見解로보면 루大統領이 歐洲政治에 干涉하여 結局米國을 戰爭에끌러너흘것이라는警告에 口實을주는것이되는 때문이다 今秋 大統領選擧의 投票에 重大한役割을 演出할 農民層도 루大統領이 外國事件에 너무干涉하는데對하여 批判的態度를 取하게되어잇다 그들農民은 루大統領의 最大關心事가 九百萬의 失業者救濟와 漸減傾向에 잇는 農民收入의 增加를 包含한經濟狀態의 改善으로向하여야될것을希望하고잇다 以上과가튼 理由에서 웰스氏는 어떠한 新事實을 루大統領에게 報告할수는 업슬것이라고 一般的으로觀測되어잇고 萬若 그의報告에 早期和平을 얼마간 促進시킬記事를 包含하엿다하여도 루大統領으로서는 獨自的和平條件을 堅持하고 일찍기 윌손氏가 十四條를宣言한바와 如히 이를宣言할것인가 現在情勢로는 [illegible] 루大統領으로서 말할수잇슬것은 웰스特使의派遣으로 豫期되어던『春季攻勢』[illegible] 지나지안는다

웰스特使
大統領과會見

【華盛頓二十八日發同盟】訪歐旅行을마치고 二十八日午後二時半華盛頓에歸還한 웰스國務次官은 一旦 國務省에들어갓는데 헐國務長官과함께 白堊舘에가서 루스벨트大統領에 今回訪歐旅行의 結果에關하여 報告하엿다 會談은午後二時지나서부터 一時間半에 亘하엿는데 白堊舘當局은 웰스次官의 報告及今日의 會談內容에 關하여 一切發表치안코 또 루스벨트, 헐, 웰스三者中 누구도 이問題에 對하여 言明지안는다고 非公式으로 發表하엿다 이리하여 웰스次官의 報告와 米國今後의 對歐政策은 目下依然不明인데 米國이 웰스次官의 報告에 基하여 新和平工作을 考慮하고잇는지 아닌지는 매우疑問視되어잇다

蘇聯近東進出企圖
빨칸政策은追後로延期
"이란"에基地獲得을策謀

【스톡홀름二十八日發同盟】브렌넬會談後獨逸側은 密히獨伊蘇三國間對빨칸協調成立說을 放送하여 모로도프蘇聯外務人民委員의 訪獨說까지잇스나 蘇聯側이 沈默하고잇스므로 그眞相은알수업는바 全歐의 觀測은 蘇聯에 쏠리고잇다 그리고 情報에依하면 蘇聯은目下 一九二七年 사다바드條約에依하여 成立된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土耳其等 近東四國의共同防衛聯盟에 專力하여빨칸問題도 뒤로 물리고잇는것으로보엿다 卽蘇聯은 사다바드條約을破壞하여 먼저이란에 壓迫을加하여 同國北部에 軍事基地를獲得하여 바쿠油田地帶의安全을確保하는同時에 이라크의 모술油田에 威脅을 加하려고 企圖하고잇다 그理由로는 蘇聯으로서는目下近東에 集結한 웨이간將軍麾下의 英佛聯合軍에 壓迫을 느끼고 이에對한 防備强化를 第一義로 생각하고 빨칸問題의 重要性을 第二義的으로 생각하고잇기때문이다 그리고蘇聯이 獨逸의宣傳에도 不拘하고 모로토프外務委員을 派遣하지 안는것은 近東의 事態緊迫을 理由로 獨伊蘇三國協定에 難色을 보이고잇는 證左라고한다 또蘇聯은 北歐地方에 對하여도 政治的攻勢를 緩和하여 專혀 共產化에依한思想的侵略의 策을 取할모양으로 새로히 芬蘭의 비보宮國으로부터 共產黨의有力分子를 모아 活躍을 開始하엿다

蘇,英國에抗議
抑留船舶釋放을要求

【倫敦二十七日發同盟】(延着) 最近蘇聯船舶의 太平洋의活動에 對한 英當局의 封鎖强化를 圍繞코 英蘇關係의惡化에 一層拍車를 加하고잇는 이지음 二十七日 마이스키駐英蘇聯大使는 할리팍스外相을 訪問하고 目下某港에抑留되어잇는 蘇聯船세렝가號及우라지밀, 마야코프스키號에 關하여 强硬한抗議를 提出하여 卽時釋放及 賠償을 要求하엿다 할리팍스外相은 이에對하여 當局으로하여금 眞相을 調査시킬言明을回答하엿슬뿐이다 그리고 마이스키大使의 抗議는 一月十六日세렝가號가 臺灣附近에서 英艦에拿捕된直後 이미 할리팍스外相에 提出하엿는데 아직 그解決이 되지안흔채 마야코프스키號가 抑留되엇스므로 다시嚴重抗議한것이다

敎育界大刷新目標
專門、中等校長만五十名、敎員은數百名의多數
新年度初大異動斷行

戰時下半島敎育界의 一大刷新과 堅實한 銃後學徒의 養成을 目標로 鹽原學務局長은 半島敎育界指導階級의 一大刷新을 企圖하여 來四月新學期를 期하여 人事의 大異動을 斷行하려고 準備案을 練磨하고잇든바 드디어 成案을 어든模樣으로 來四月一日을 期하여 全朝鮮敎育界에 걸처 人事大異動의 發令을 보게되엿다 今番의 異動은 專門學校長 中等學校長만으로도 約五十名以上에 達하고 이에따를 各道의 敎員異動은 數百名에 達할 豫想인것이다 그런데 同時에 新學期부터 新設의 晉州師範及 其他中等學校는 合計十七校에 達하여 이校長들의 發令도 잇슬터인데 이中에서 이미 政府認可를 마친것은 晉州師範을 除하고 겨우二校에 不過하고 남어지十四校는 아직認可를 엇지못하엿다 그러나 此際이未認可의 學校長과 敎員도同時에 發令을斷行할意向이다

學務課長級以下 繼三 그後任에는 京畿道視學官島田牛雄 그後任에는 忠北視學官藥師寺淸玄氏 그後任에는 平北視學官大丸勝民氏 그後任에는 平壤三中敎諭平野東秀氏의 榮轉等이 注目되고 法專校長後任은 未定이다

豫想되는重要異動

內鮮一體의 大精神下에 皇國臣民鍊成을 目的하고 昭和十三年四月敎育令을 根本的으로 改正하여 敎學刷新을 斷行한 總督府學務局에서는 刷新第三年을 마지하여 다시人的刷新을 圖謀하여 戰時下 有能한 人的資源의 造成에遺憾이업기를 期하고 人材拔擢 適材適所主義에立脚하여 專門、中等校長五十餘名을 비롯하여 敎諭 各道視學等 百餘名에達하는 廣範圍의 劃期的 大異動을 斷行하기로되어 一部는 三十日附로 發令을 보게되엿다 그中重要한것을 차저보면 京城法專校長鹽崎誠祐氏와 京城師範校長渡邊信治氏는 後進에게길을열기爲하여 勇退하고 京師校長에는 總督府編[illegible]이다

科學振興調査會

【東京電話同盟】科學振興調査會 第二回總會는 二十八日午後五時十分부터 文部省에서 開催 松浦文相以下 委員, 船橋文部次官 赤間次官 仲井間文部參與官 其他十六名이 出席 科學振興에 關하여 愼重審議를 거듭한結果
一、大學에 잇서서의 科學研究施設充實
二、科學振興에 要하는人材養成
의 二點에 對하여 各各新特別委員會를 設置하자는데 意見一致를 보고 五時五十分 散會하엿는데 이 二特別委員會의 定員及委員의任命에 關하여는 會長에 一任하기로되어 近近發令될豫定이다

朝鮮新課稅率決定
三十日總督府로부터發表

昭和十五年度부터 實施될 三千萬圓餘의 大增稅에 따르는 朝鮮稅令의 改正은 法制局에서 審議中이엇는데 二十八日 겨우審議를 完了하엿다 課稅率은 三十日 財務局長談의 形式으로 總督府로부터 發表하기로 決定하엿다

加藤公使
空路로上海에

【東京電話同盟】特命全權公使加藤外松氏는 二十九日 午前空路로 福岡雁巢에서 上海로向하엿는데 다음가치말하엿다 이번에上海에가는것은只今말할수업는데 四月上旬 一日歸朝하여 同月中旬부터 三個月間南中[illegible]

墨西哥經濟使節團 龍田丸으로香港出發

【香港二十七日發同盟】墨西哥經濟使節團一行은 二十七日午後香港을 出帆하는 龍田丸으로 一路橫濱으로 向하엿는데 香港에서는 二十六日 香港日本商業會議所主催로 歡迎會를 열엇다

鄱陽湖東岸大混亂
暴徒蜂起米騷動勃發

【南昌二十八日發同盟】江西福建浙江各省의 敵軍占據地帶는 最近物資缺乏으로 民衆의 餓死續出, 各地에 暴徒蜂起의 慘狀을 呈하고잇는데 鄱陽湖東岸의 敵要衝景德鎭에는 지난二十日 드디어 米騷動이 勃發 大混亂에 빠젓다 卽當地敵側日報가 傳하는바에 依하면 景德鎭을 中心으로 都昌(景城東方五十키로) 附近一帶에 亘하여 約二千의 暴徒蜂起하여 米穀商을 襲擊하여 各商店을 擊毁하고 敵軍의軍隊及保安隊와 大衝突을 演하고 二十二日에는 暴徒의數三千을넘어 鄱陽湖東一帶는 大混亂에 빠젓다

機構를擴充强化
滿洲開拓靑年義勇隊

【新京二十八日發同盟】滿洲開拓靑年義勇隊擴充政策에 對하여 日滿兩國政府는 일직부터 獨立된 組織體를 編成하여 적어도 指導部面에 關하여는 全面的으로 統轄할 機關下에 現在 大訓練所, 甲, 乙種訓練所等 各訓練所의 一貫된 指導方針을 確立하려고 滿洲國法令에 基한 義勇隊訓練本部의 設立을 開拓政策의基本要項에서 決定 昨年末來도 設立準備를 進行시키는一方 右法令에 對한 條文의 起草에着手 四月一日公布를 目標로 銳意準備를 加하고 잇던바 二十七日同法案은 參議府會議의 可決을 보게되엿스므로 豫定과가치 四月一日 同法令을 公布하기로 되엇다

化學加工澱粉
最高販賣價格公布

【東京電話同盟】商工省에서는 압서原料澱粉의 價格을 引上하엿는데 化學加工澱粉(織物, 切手糊用)의 最高販賣價格을 價格等統制令第七條의 規定에 依하여 二十九日告示實施하엿다 九一八價格에 比較하여 製造業者販賣價格은 一割二分의 引上이다

四億六千餘萬圓
公債를發行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 政府는 今月十九日 廿九日發行으로서 昭和十四年 新規公債發行豫定額中 二億六千五百萬圓及支那事變公債二億圓 合計四億六千五百萬圓을 左記要項에 依하여 發行하기로決定하엿다

一、昭和十四年度 新規公債分發行豫定殘額分
1、國債名稱 三分半利付國庫債券『ケ』號
2、發行額 額面二億六千五百萬圓

그中道路事業費의分	一〇、六六八、一〇〇圓
震災善後費의分	三、七三四、九〇〇
滿洲事件費의分	三九、六三〇、六〇〇
歲入補塡의分	二〇、一二六、四〇〇
朝鮮事業費의分	一三六、〇〇〇、〇〇〇
臺灣事業費의分	六、三四〇、〇〇〇
鐵道事業費의分	三五、〇〇〇、〇〇〇
通信事業費의分	三、五〇〇、〇〇〇

3、發行價格 額面百圓에對하여 九十八圓五十錢
4、發行日 昭和十五年三月十九日
5、償還期限 昭和十六年六月十五日
6、利率年三分五厘
7、利子支拂期 六月十一日及十二月十五日의二回
8、初期利子 昭和十五年六月十五日 該額面百圓에는七十五錢
9、發行方法 日本銀行引受
10、利回 複利 三分六厘六毛 單利 三分六厘八毛

二、支那事件公債
1、公債名稱 支那事變國庫債券『ワ』號
2、發行額面 二億圓
3、發行價格 額面百圓에對하여 八十八圓
4、發行日 昭和十五年三月廿九日
5、償還期限 昭和二十二年六月一日
6、利率年 三分五厘
7、利子支拂期 六月一日及十二月一日의二回
8、初期利子 昭和十五年六月一日 日渡額面百圓에對하여六十一錢
9、發行方法 額面一億圓日本銀行引受 一億圓 大藏省預金部引受
10、利回 三分六厘五毛 單利三分八厘五毛

八面鋒

◇크英大使 米國으로 休暇旅行, 目的은 令息을 보기爲함이라고.
◇원씬보고 학자도라는格으로 令息도 만나고, 極東政策도打診하려나?
◇따늡江에는 解氷과함께 獨逸油槽船의 來往이 頻繁.
◇船夫여! 石油실고가는 船夫여! 이江을바라보며 오늘은 무슨 노래를 부르려는고.
◇佛蘭西는 新首相, 大公使도召還, 英國도訪問, 무엇을 期待하여도 無妨할까요.
◇오늘이 京城市內小學校 入學考査日! 어느날이 考査를 안볼련지.
◇朝鮮佛敎振興을 爲하여 寺刹令施行規則을改正.
◇俗人도 僧侶도 俗化, 要는人間再出發이 必要.

人事·集會

▲野崎眞三氏(朝鮮新聞社取締役副社長) 二十八日午後七時 橫濱市神奈川區白幡町서 逝去
▲前木宏二氏(總督府農務課事務官) 興亞勤勞報國隊派遣事務協議次 二十九日午後三時三十分京城驛發 新京에出張 四月三日歸任豫定
▲厚地法人氏(總督府農務課長) 內外地物價聯絡會議出席次 三十一日까지 東京으로渡東

偉大한世界文學의精華
우리가 歡呼의 實玉篇
全世界讀書層을風靡한名作中名作!
世界文學全集第一卷
金色의太陽 펄벅큐리篇
펄벅女史의「大地」와 큐리의「큐리夫人」
朝鮮에 文化運動이 일어난후 三十餘年에 世界名作을 朝鮮말로 紹介한것은 한卷도 업다。이제本社에서 비록抄譯이나마 全十二卷의「世界文學全集」을 發行하는것은 그意義가 적지안타하겟다。더구나 이번第一回配本은 全世界人類의最大의 賞讚을받고 數百萬部數를 賣盡한 名作中名作인 펄벅女史의『大地』와『어머니』와 또는 에바큐리의『큐리夫人傳』을 盧春城氏의 流麗한 筆致로 번역한것은 實로 크나큰자랑이 아닐수업다。大地는 支那大衆을 題材로 한世紀的大作으로 全世界에 文字를 아는사람은 모다 歡呼와 賞讚을 보내엇고 더구나 映畵까지되어 世界坊坊谷谷을 휘돌게되엿다。그리고『큐리夫人』은 日本서도 文部省推薦名書로 數十萬部가팔리고 映畵까지되어 只今東京에서 上映中인 超名作이다
盧春城編
偉大한世界文學의 一大金字塔 小說家 方仁根
朝鮮말로 世界文學全集이 發行된다는것만해도 참말慶祝할일이다。더구나 全世界讀書層을 風靡하여 數百萬部를 突破한 펄벅女史의『大地』와 에바큐리의 큐리夫人傳이 朝鮮말로 發行된것은 實로 우리出版界에 一大光明이 아닐수업다。多少의 抄譯이 아니요 그 抄譯이라고 하나 그譯文이 流麗한것은 實로 雨上添花이다。『大地』는 日本서도 五六十萬部가 팔리고 큐리夫人은 文部省推薦圖書로 亦是絕大의 部數를 突破하엿다。이런冊은 누구나 絕對로 아니볼수업는冊이며 同時에 子女나 姉妹에게 安心하고 읽길수잇는 冊이다。云云
(全十二卷의世界文學全集內容)
第一卷 펄벅큐리夫人篇 盧子泳
第二卷 支那現代小說集 丁來東
第三卷 톨스토이篇 (復活 人生論 안나카레니나) 咸大勳
第四卷 트르게네프篇 (春夢 處女地) 李石薰
第五卷 피리키篇 (어머니 三十年 밋바닥) 白鐵
第六卷 떠스터에프스키篇 (罪와罰 白痴 카라마조프兄弟) 金煥泰
第七卷 椿姬 사닝 林學洙
第八卷 쉑스피어篇 (하믈레트 로미오와줄리엣 베니스商人) 金尙鎔
第九卷 만눈초 지드篇 金晉燮
第十卷 입센의人形의家 鄭人澤 (모파상의『女子의一生』과 소의『懺悔錄』)
第十一卷 께테篇 (『베르테르의설움』과『파우스트』) 鄭寅燮
第十二卷 最近世界詩人集 異河潤
四六版 三色度 洋裝 崔根培畫伯裝幀 一冊 定價 一、四〇 (送料 一三)
京城府明倫町一丁目三三 振替京城參武參參八番 明星出版社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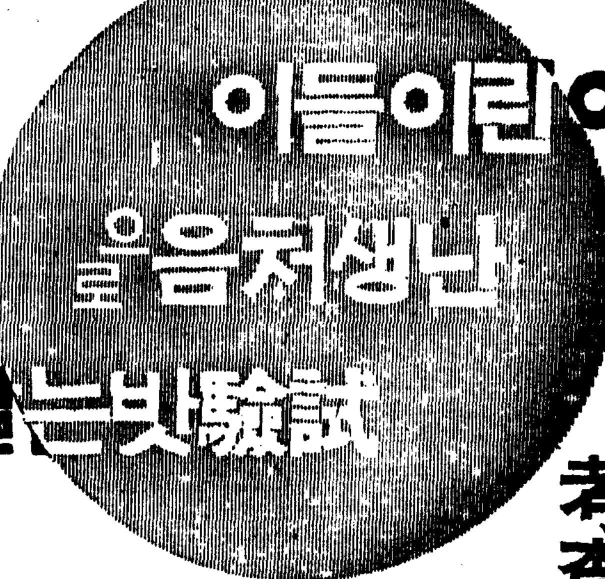
自山安廓著
朝鮮武士英雄傳
東方의天地를뒤흔들든 朝鮮武士英雄의빛나는生涯!!
偉大한朝鮮人의氣魄
朝鮮武士英雄傳은 朝鮮四千年史上에 빛나는 武士와 英雄들의 씩씩하고 勇敢한氣槪와 그生活을 記錄한것이니 이런冊은 近來出版界에서 到底히 보기 어려운名著中名書이다 해올우는 東方에 秀麗한 山河를 등지고 거기서자란 朝鮮人이란 決코못난사람이 안이다。偉大하고 勇敢하고 才操잇고 씩씩한 朝鮮人의 氣魄을 여기서 차저보고 우리는 한번 여개를 펄수잇다。四千年史上에 武士英雄들의 빛나는 온갖生活과 로만스와 精神을 기록하고 아울러 그武士道와 沿革을 記錄한 이冊은 實로 靑天에 빗나는 한個太陽으로 자랑하는바이다。
讀書界의快消息 歷史家 黃義敦
朝鮮學과 朝鮮典籍이 稀貴한 이때에 이런 冊이 나오는것은 여간기뿐일이 아니다。더구나 요새 朝鮮사람은 文弱하고 氣質이업스나 옛날에는 朝鮮에도 武士道가잇서서 씩씩하고 勇敢한 氣風이 어느나라사람에게 지지안엇다 이제이方面에 權威者인自山이 多年 研究한結晶으로 그武士道의 沿革과 源流와 武藝를類別하고 다시그들의英雄的生涯를 詳述한것은 完全近來에볼수업는快著이다。우리들은 이런冊을읽고 朝鮮사람의옛날氣風을배워야할것이다 云云
目次一般
第一志 一、緖言 二、武士道의源流 三、武士의發展 四、武士의團體 五、武士의戒命 六、武士道와宗教 七、武士의歌樂 八、麗朝以後의武士 九、武士道의倫理
第二志武藝考 一、總論 二、弓術 三、擊劍 四、柔術 五、騎馬 六、蹴球擊毬 七、石戰 八、武藝와藝術
第三志 武士英雄傳 一、三國時代廿四人傳記 二、麗朝時代廿七人傳記 三、李朝時代廿一人傳記
四六版 桑華洋裝 鄭玄雄畫伯裝幀 一冊 定價一、二〇(送料一〇)
京城府明倫町一丁目三三ノ四二 明星出版社 (振替京城參參參八)

朝鮮名士書翰大集(近刊)
三人長篇全集(近刊)
文化常識講座(第一卷)(近刊)
探偵小說 二億萬圓의사랑(近刊)

知、體、家庭形便三者로 綜合考查、登落決定

"이것도試驗이라니까마음은설네인다"

考查場에서엿보는童心世界



第一夕刊所載＝오늘아침여덟시반부터 마을연 부내십삼오공립소학교의 입학전형고사는 정오가넘도록 계속되엇는데 오후두시경에 이르러서 고사만은 위선우 끗을마추엇다 이제남은 문제는 고사결과를 종합해보고서 누구를드리며 누구를떠러틀까를 결정지을 최후의판단이 남어잇을뿐인데 대체로채점을 기초로하고 가정형편등을 참작하여서 신중히 전형한후에 추후(追後)발표될터이다 이번 고사의 표준과방법은 학교에따라서 일정치는아니하엿스나 대체로 차이는없어서 체능(體能)과 지능(知能)과 및지원아동의 가정형편을 참작하여서 등낙을 결정하기로하엿다는 점에서는어느학교나 다틀림없엇다 체능은 간단한 신체검사로써 두렷이나타난 불구자가아니면 학업에큰 지장이업는한거개가 판대하게보아주기로한 모양이라고하며 지능고사에잇서서는 기억력 판단력 수리판념 그리고간단한상식 가령아버지는 무엇하시느냐 나히는 몃살이냐 이런정도의 상식고사를하여 이상 여러가지를 종합하여서 채점하게 되는것이거의 전부이엇다 기억력 판단력 수리판념에대한 고사는학교에따라서 방법이각각달러 어떤학교에서는 그림책을가지고 또 어떤학교에서는 물건을 재료로하여 어린이들의 지능을시험하엿는데 뚜렷이 팍팍알아마치는 아이 가다가 대답이막히여서 머뭇거리는아이 원기는잇스나 동문서답(東問西答)으로 고사방면 선생님들을 놀라게하는 이이하며 이날각고사장에서는 긴장한 가운데서도 어린이답게 천진스러운 각종변극이 버러졋섯다

말문이막히면 머릴극적극적 (壽松)

수송(壽松)소학교의 오전열한시—

◇…이래뵈도『수험장』인데어느틈에 냄새를맛고 달려왓는지 정문아래는 엿장수들의 가위소리만 절컥절컥요란하다

◇…마당한복판에는 번호순으로 꼬마검상들을 나란히갈고 남녀별로 따로따로 전형번호(銓衡番號)를 가슴에단아기네들이 번호부르기를기다리고 얌전스레안저잇다

◇…고사실은 이학교대강당 휘휘한강당안에는 남녀선생합하여 모두여섯대로 손을나호이서 각각한아이식 순서대로 불러서『이건무어냐』『저건무어냐』하고 꼬치꼬치 추궁어본다

◇…그중 한아이—남아세루양복으로 아래위를 단장하고 손에는 학생모자를들엇다 선생님은 그림책을 내여노코 뭇기를시작한다 『이건 뭐냐?』 하고대답한다 『생선이애요』 『무슨 생선?』 『붕어라는데요?』 『옳지 마젓다 마젓서 붕어데 그럼 멧개냐?』 어린이는 오른손에는모자를 원손으로 바꾸어쥐더니 바른손 손꾸락을 가지고서 그림에 잇는 붕어색기를 하나 둘세이고나서 고사리가튼 『"전부주먹을 휘저으면서다섯"』 개애요!" 하고대답한다 이어서 선생은 다음그림을내여노코 하찰동안보게한후 그림책을 덥고서 무엇무엇이 잇느냐 무러본다 어린이는 서슴지안코『사탐…개…애기…』하고 대답하고서는 무엇을이것는지 한참동안 눈만꿈벅거리고 잇다 이것을본선생은 『"또 다른건 업늬?"』 하고 재촉을하자 어린이는 그제야 알엇다는드시 자기머리에 손을 가저가면서 목소리를 도두어 『모자!』하고 대답

先生님골니는 곤니찌와인사 (德壽)

학교문앞은, 땅, 캬라멜장사도 서잇고 이루고잇다 덕수(德壽)소학교아픈 장사수가 적은편인데 도다섯사람 학부형들은 시험장에 들어갈 자제의배가 고플사라 자꾸 이것저것 사먹이는것이마치경마전 주인이말에게 홍당무를먹이는듯싶다 한편어린애들은시험이어떠한것인지 모르는체 때때옷입고 파자먹는것만이 기뻐듯이뛰놀고잇다 먼저 시험치르는애가 나오자 그학부형이 미처묻기도전에 다른 학부형들이 에워싸고 『무얼 뭇드냐?』 『새다리가 멧개냐구……』 『또 무얼?』 『또 만하』 『글세 무얼 뭇는가말야』 『이저버렷서……』 시험치른애는 바게서 도한번 시험을 치르는세음이다

◇

시험장에 들어서니 남녀선생이 한책상식 마타가지고 들어오는애를 차례로『고사』한다 선생『나하는대로 해봐요—센세이 오하요—』 아동『……』 선생『뭇 하겟니?』 아동『그건 아침에 하는 인사애요 나제는"곤니찌와"한다는데……』 선생도 웃어버린다 여기도 학부형들이 얼마나 시험준비에애썻는가를 알일이다 다음 책상에서는 초록,녹,노를 …

반말대답해도 先生님은우서 (惠化)

이곳은 혜화소학교(惠化小學)이종 입학고사장이다 두교실의 새벽을 툭은노흔 넓은장내에는 여섯개의테불이 두줄로 뜨문뜨문노혀잇다 테불에는 빨가코힌 바둑돌멧개와 종이 그리고 연필이노혀잇다 "다음 백삼십오호"하고 선생님이 소리를치면 누나격인 여자재학생들에게 이끌리어 귀여운 조그만발로 동동소리를내며 아장아장 걸어들어와 선생님책상아메선다 이제부터 고사가시작된다 "이름이무어지" 선생님의목소리는 퍽이도보드러워 조마조마하는 어린이들의 가슴에 마치자기친부모대하는듯한 느낌을주는상싶다 "여기서 빨간것을 다섯개만 골라내면용지"하고 붉고힌바둑돌을 석거서 내노면 선뜻골라놋는다 "그러면 이번에 이종이속에 무엇무엇잇나 아러마처봐용"하고 더퍼노은종이를 번쩍드니거기에 연필한자루와 캬라멜 그리고 바늘이한개가 들어나온다 "연필, 미루꾸"하고 거침업시대답한다 "왜 도잇지" "몰르겟서…그럼 도한번볼까" "바늘이잇서요" 「올치바늘도잇지…얘들아이종이가지구 저기신선생님한테가거라」 해점 한종이를들려교장선생에게보낸다 이러케 어린이들이 고사를밧는동안 어린이들의 부형들은안절부절못하고 따뜻한 봄볏치내려쪼이는 교정한모통이에 안타갑게 오락가락하고 교문밧게는 한목보려는 장사치들의『팡이 엿깨에 십전씩이요』하는소리가 불어오는봄바람에 노래하도 흐려저간다

堂山町에疫禍

【永登浦支局電話】 부내 당산정(堂山町)삼백사번지 이십오목수 임생국(林生國)(?)는 지난이십팔일평택(平澤)으로부터 현주소로와서 지나든중 얼마전부터병이나서 알코누어잇섯는데 이십구일이천정 천연두로 판명되어 고부근일대를 소독하는일방 환자는순화병원에 입원시켯다

★…入學考查場點景…사진은 우로부터 …엄마와 언니의 손에…고사장안에서…고사번호를 따라차례로…선생님이 뭇는말을 대답하고…☆마음을 조리며 차례를기다려…나오는아동들

小作委員會强化

內容機構와職權範圍를擴大

惡質爭議一層監視取締

전조선각부、군、도(島)에는일반소작문제를 중간에서 조정하기위하여 소작위원회(小作委員會)를설치하고 그기능을 발휘하여오는터인데 현재잇는 소작위원회의 기구와 직무의내용은 소작인들과 지주들이 어떠한문제가잇슬때에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신청하는사건에 한하여 중간에서 조정을 하여왓스나 이번에이에대한판제를 개정하여 내용기구를 확충강화하여 직권의범위를 확대시켜가지고 당사자들이 신청을하지안는대도 소작에관한 문제만 발생되면 위원회직권이 발동하여 조정알선하기로되엇다 그리하여금후지주와 소작인을 물론하고 악질의 소작쟁의를 이르키는경우에는 엄중히 처분하여 이들농촌의악폐를 완전히 일소할방침이다 이에대하여

岸農振課長談 이에대하여 총독부안농촌진흥과장(岸農振課長)은 다음과가치 말한다

전조선각부、군、도에설치한 소작위원회는 소화구년이래 조선소작조정령에의하여 권해(勸解)와 조선농지령에의한 판정등그취급한사건수는 매년증가되는실정인데 원래이위원회는 판민양위원의합의제를 채용하고 잇스므로 사건이공정원만히 처리되어서 당사자들의신뢰도 상당하다 소작판계중에는 조정령에의한 조정신립이 되지안흔것도잇고 또쟁의까지는 되지아니하여도 당사자중에는 상당히 불만을품고 악질의쟁의를 비저낼염려가 잇는 실정이므로 이들 사건에대하여 소작위원회로하여곰 알선조정케하는것은 자못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 군 도소작위원회는 작년부터 시행된소작료 등 통제령에의하여 소작료등의 결정 파변경 명령도할수가잇는데 위원회의 이소작료등의 결정 당사자의 협의를필요로 하는것이므로 그알선에당하는것도 필요적절하게되엇다 따라서 소작위원회판제가 개정되어서 그권한이 확장된것이다 이번판제 개정에의하여 위원회의 금후활동여하는 소작판계의 전면적개선조정에 적지안흔효과가 기대되는것이다

李王殿下台臨下 故金玉均氏慰靈祭擧行

【東京電話同盟】 조선의 선각자 고김옥균(金玉均)씨 추도기념회는 황송하옵게도 이왕전하의태림을밧드러 이십팔일오후 세시부터『마루노우찌』일본구락부에서 거행되엇다 식장에는 생전고인과친교가잇던 두산만 영천(頭山滿、永?)씨등을 비롯해서 소기(小磯)척상 수야련태랑(水野鍊太郞)등 백여명이 출석한가운데 위령제를거행한후 주최자측을대표하여 금정오개(今井五介)씨의 인사 수야련태랑씨외 제씨의 고인을 추억하는회고담이잇슨후 『김옥균선생』의 만수가잇고 여섯시지나서 산회하엿다

移民列車는北쪽으로!

봄비치 지터가는 고향산천을 등지고 바람거센만주벌판으로 떠나가는 서본조(西本組)인부오백명은 이십구일오전열한시오십분경서 연발 특별열차로 북쪽에의길을밟엇다 이들은 총독부에서 알선한노동자로서 서본조에서공사하는모방면에 쓰려는것인데 리별을아껴하여 서울까지쫓차와서 손을회수르며 잘단여오라고 눈물짓는광경은 애처러웟스나 새길을개척해나간다는씩씩한모양도 엿보히엇다(사진은이민열차간)

森信運輸 解散義捐

江華中學期成資金二萬圓을爲始 合四萬五百圓島內各團體에寄附

【江華支局電話】 삼신운수주식회사(森信運輸株式會社)의 자동차선로일부는 얼마전 경기철도에 매도되엇는데 삼신회사에서는그관매액중 사만오백원을 강화도내 각기관에 기부할돗을 이십구일에 정식발표하엿는바 각방면에 배정된것 세목은 다음과갓다

▲中學期成會 二萬圓
▲國防方面 一萬圓
▲郡內公立小學校 三千圓
▲郡內私立小學校 二千圓
▲專修學校 二千圓
▲保勝會 二千圓
▲郡內各基督敎會 九百圓
▲郡內幼稚園 五百圓
▲奬學會 三百圓
▲其他 八百圓

삼신회사사장 유진식(兪鎭植)씨는 다음과가치말한다 극히적은 금액이나 나로서는 항상희망하고잇던 강화도민전체에대한 나의성의를보인것뿐이외다

非命의橫死

비명의회사원…

이십구일오전여덟시반 부내압정 일백칠십삼번지 압길에는 마흔대살쯤된 사나이의 시체가잇서 서대문서에서 검시한결과 변파주입에 쓰러진것임을밝엿고

◎부외신도면연신리(新道面延新里) 노동자이귀룡(李貴龍)(三八)은 이십팔일오후두시 동리압철도공사장에서 일을하다가 넘우도공사장에서 무너저내리는 흙더미에깔려 뜻아닌죽엄을하엿다

江陵에停電

【江陵】 강릉시민의 눈인 강릉전기는 지난이십칠일 저녁일곱시반에 돌연 동회사의 기계의고장으로 정전이되어 약오십오분만인 여덜시이십오분에 겨우회복되엇다

祥明高等技藝學院

乙種實業으로昇格

昨日設立認可、基地도買收

싹트는봄을 마지하여 배움의길을찾는 어린새싹들에게 기쁜뉴－스가하나잇다 부내사직정 상명고등기예학원에서는 그동안교주배상명(裵祥明)제씨의 협력에의하여 수업연한삼년의을종실업학교로의 승격을 당국에신청중이던 상명실천여학교(祥明實踐女學校)의설립인가원을 제출중이던바 작이십팔일로드디어 정식인가가 나왓다 그리하여 동교에서는 명실이부합하여 …

一、募集人員 本科五十名 專修科一百名
一、修業年限 本科三年 專修科一年
一、應募資格 尋常小學校 卒業者又는同等以上의 實力이잇는者
一、願書接受期日 四月十四日限
一、試驗期日 四月十五、十六日
一、試驗場所 京城府社稷町三一一番地 祥明實踐女學校

하는내용이 충실한학교를 만들기위하여우선 교사를신축하는동시에、새교사를세울기지 일천오백평도한강건너편유석정에다 사놋다고한다 그리고 금년도신입생도 다음가치 모집한다고한다

金日成匪潰走

간도성안도현 대마록구(安圖縣大馬鹿溝)오지에서 김일성(金日成)일파를 추격중이던 우리적굴(赤堀)부대는 이십팔일 오후여섯시 대마록구서쪽 약시오디지 정부근 밀림지대에서 비적일단 …

世事

사람의 복색이란 언어행동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사람된법을 무언중에 표시하는것이다

▲그것은 지나가는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만나는무수한 사람들을보고 이사람은 점잔는사람이갓고 도저사람은 배우갓고 또저여자는 여점원갓기도하다던가 신사처럼보이는 사람들을 알기때문이다 ▲그러나 그가치나 입히 따져보고 다니려는 사람들은 보려고안해도 저절로 혹은 나는 이러하다는 사람이요하고 자신들이 설명하드시 다른 복색을하고 다니기때문이다

▲그럿타고 봄빗은 봄새는 복색 필요한 봄새를 칠신 지나치서 치려보채리게될때는 벌써 자기의 분에 을 남에게적극으로 알려야할 필요를 가진 남녀들의 하는 짓이라 할것이니 ▲예를 들자면 기생이라던가 또 방거리의 매음녀라던가하는것등이、그중에서가장 혹심한것일것이다 ▲남자의옷도 그러하거니와 여자들의옷과 화장은 더욱 그러한것인데 봄새 새옷치레하는것들을 볼때 경계할필요를 느끼지안흘수업다

"까솔린"車와側面衝突

乘合自動車大破

兩便乘客九名重輕傷

이십팔일오후세시오십오분 합흥시소유 승합자동차는 승객이십칠명을 태우고 함흥을떠나 신흥(新興)으로 가든도중 함흥부서함경중리(西咸町中興里)접도경에 이르러 오다가 신흥철도까솔린카―가 달려와서 기동차의 측면에충돌되어 자동차는 한채가 모부서지는동시에 까솔린카―승객 신흥선와 승객가온데 중경상이 이십명이 부상되었다 이철도길목은 지키는사람이 고대하기때문에 대리인을 두엇든바 차단기내리우는것을 게을리하고 잇섯기때문에 사고가발생한것이다

闘志満満한 專大拳闘軍一行

多數出迎裡에今日入城

朝鮮에서는 專修大學拳闘部를 招聘하여 對抗戰을 來四月三日(水)午後三時부터 京城運動場特設링크에서 擧行케되엇는데 專大拳闘軍一行은 今午後一時四十五分 京城驛着 『이까쓰기』로 入城하엿는데 驛頭에는 斯界의關係者와 拳闘팬多數가出迎하엿다

李龍星君談 우리一行은 여러분의 熱狂한 出迎을 밧고 入城하엿습니다 大京城에는 이번이 처음이니만큼 여러가지로 기대되는바가 큼니다

全朝鮮拳闘聯盟 代表委員會開催

全朝鮮拳闘聯盟에서는 來四月二日午後三時부터 和信社交室에서 昭和十五年度 代表委員會를 開催하고 昭和十四年度의 役員이 滿期가되엇스므로 다음과가튼 事項을 討議한다고한다

◇討議事項
一、昭和十四年度事業報告
一、昭和十四年度會計報告
一、昭和十五年度豫算案
一、昭和十五年度事業計劃
一、規約改正
一、役員改選

日本代表選手決定 朝鮮選手五名

【東京電話同盟】 日本陸上競技聯盟에서는 來六月에行할 東亞競技大會에 出場할 日本代表選手七十名을 排選하고 各地方協會와連絡하여 各地에서 合同練習會를開催하고 六月의 全日本選手權까지 繼續하기로되엇다 그리고 關東地方에서는 每週日曜日에 合同練習을하여 四月二日午後二時부터 明治神宮競技場에서 第一回練習會를 行하기로되엇다 日本代表選手候補名은 다음과갓다

▲短距離 吉岡隆德(大塚俱) 金裕澤(京城高商) 吉原隆信(京大OB) 金田潤英(慶OB) 岡田至(門鐵) 中野保男(文大) 向井鼎一(京大) 山本齡三(早大) 鈴木(?)實(蓬正中) 森町三之助(早大) 三木宗雄(和高商) 船田幸一(讀中) 戶田一男(關學) 吉田正市(村松中) 黑澤(中島飛機) 今井慶三(慶大) 湯淺…
▲中長距離 石田正己(日大) 勝亦酒敦(文大) 孫(早大) 伊藤鐵郞(雄勝靑年) 徐永烈(咸南) 田中秀雄(明保) 村社講平(金川帳) 鄭野當一(日大) 小村隆夫(日鐵) 加藤睦雄(高千穗高商) 山本勝夫(日鐵) 河村義…
▲障碍 村上正(早大OB) 川村章(文大) 平田一郞(明大) 田中順(早大OB) 根日(?)禪正紀(文大) 楠道秀(文大) 平井新司(文大) 小田津水(文大) 岡村元仁(金川帳)
▲中距離 原田正夫(日立) 金源稷(普成專) 前田新生(名高商) 齋藤浩(文大) 矢田喜美雄(大阪) 岡本三二(門鐵) 村方之助(日大) 中村公一(門鐵) 安納定男(中大) 田中弘(早大) 潭田文吉(文大) 秋間岩夫(北大) 鈴木義博(旅順中) 原學(明大) 鈴木寅(法大)
▲投擲 高田靜雄(廣島) 西田泰介(岐敎) 植田孝一(金石日鐵) 水倉秀松(日大) 松田登(早大) 上野登(早大OB) 渡邊淺(文大) 宮城榮仁(三重高農) 本橋彌(中大) 朴寶圭(京城府敎) 泉本耕作(關敎) 寺村善一(日大) 谷本文男(早大) 白承旭(普成專) 鳴永城太郞(靑府俱)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童話 ▲六時三〇分 講演 ▲七時三〇分 經濟解說 ▲八時 歌謠曲 ▲八時三〇分 南道歌謠

亞米利加大陸의主人公인 紅人種의種族滅亡原因?

黃金國亞米利加大陸

一般으로 生覺하기는 亞米利加大陸하면 먼저 도리오는것印像은 諸穀物資가第一豐富하야 黃金國이라고하며 그곳에住居하야잇는 白人들은 모다富裕하고 幸福스럽은生活을하고잇다고 누구나 다말할것이다 그러나몇百年以前으로 부터約四五百年前에는 ……

이新大陸인亞米利加를發見하기前에는 엇를 비치삿라인紅人種(아메리칸인디안族)들만살고잇섯다。

× ×

弱肉強食과生存競爭

世上에어느人種을勿論하고 大部分은其子孫이繁殖하고 人口가漸次로增加하야지므로 먹을것갈곳을엇기爲하야 피를흘니며 弱肉强食으로生存競爭을하는데 이紅人種만은 反對로種族繁殖을못하고 漸次減少되여 남어잇는 極少數의紅人種들도人種學硏究의 資料로爲하여 特別히保護를밧는다고한다。

그러면紅人種은 웨다른人種과가티繁殖하지못하고滅種이되여가는가?

一般에依하면 白人이 亞米利加를占領하고開拓當時서로 싸홈을하야白人의銳利한武器에 만히마저죽엇다고하며 남어지는白人들에게쪼끼여 山間僻地로도리가서 交通이不便하고、먹을것조차 充分치못하여 生活安定이못되고、또는 저들은原始的生活을함으로 衛生에對한觀念조차업슴으로 惡疾傳染病가튼데病疫者가만흔 關係로 紅人種은自然繁殖하지못하엿스며 또한가지重大原因이醫學史上에뚜렷이남어잇는 수수꺼기가잇다는事實이잇다.

× ×

紅人種滅族의原因과 歐羅巴淋疾紀元

一四九二年頃콜롬부스 오로부터 約五百年前에世紀의 航海探險家葡萄牙人들이 亞米利加新大陸을發見하여 新大陸에나우어 部下一千二百餘名을引率하여가지고 千辛萬苦를격근後에 亞米利加新大陸을發見하여 彌滿한偉勳을세웟다、그러나그裏面에는 同伴部下들이 新大陸에서 前에업는惡疾을傳染하여 가지고오앗다。이것이 歐羅巴에淋疾發生紀元이라고한다고 紅人種의種族滅亡한重大原因이엇다。그들은이러한무서운性病이잇슴을 모르고 治療할줄조차업슴으로 自然病은 蔓延되여 長久한歲月을 經하는동안 種族까지 悲慘하게滅亡하게되엿다。

× ×

トマーク博士와 ノーベル賞

快哉라！トマーク博士의偉功이여！(治淋特効サッタリム主成分發見者)人類의敵인淋病의撲滅을爲하야 一九三八年度ノーベル賞獲得者로서 淋疾治療에特効成分スルフォンアミド(サッタリム主成分)를發見하신偉功은우리人類에게百世不滅의恩人이아닐수업다

サッタリム本舖 京城府堅志町 株式會社新興製藥所 總代理店 新井藥局 急性用五圓慢性用十二圓

京城販賣所 電本一五九七

漢榮中學院生徒募集 本科一年(晝)二〇名·夜五〇名·二·三年補缺若干名、豫科速成科、各若干名 高等受驗科五〇名·京城府三角町·電話本局六四八二番 詳細問合

京城實踐簿記學院 生徒募集 (夜間)會計實務全般 簿記會計簿記 四月十五日(月)開講 太平通大漢門横

「保險種類最新最優」「給與規定極メテ寬大」 今日 京城支社開設ニ付各地募集社員招聘ス 前川生命保險株式會社 京城支社 京城府永樂町一一三 電話本局六七六一番

幹部社員招聘

女工募集 女子工場從業員數十名 年齡十三才早터十八才까지 右希望者는履歷書持參本人來談 時間 毎日午前九時早터三時까지 京城府旭町一ノ二四 樂天堂

創氏!改名 松岡 京城府櫻井町一丁目四六 電話가지계속하오니 많이애호하여주소서

簡易生命保險勸誘 事務員 外交ニ經驗アル者 京城本町二丁目 二十五才以上男子

春服 スプリングコート 紳士服其他 富永洋服店 京城府黃金町二丁目(永樂町停留所前)

音樂硏究生募集 初步의 어린이로 京城府明治町二ノ二 音樂社

竹下商店 賣物 京城府北米倉町九三番地

代理營業所長 求ム 平河町 地方ニ

松子야 今年三月에 家出한 여야

賣家 京城府 十一間三十一坪 …

朝報案內

地方 受驗數學 京城府大平通 …

受驗數學 京城研數學館 四月八日開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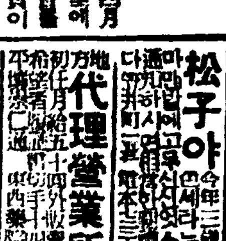
熊崎式姓名學 熊崎健翁先生 日高億嚴先生 京城府錦町 …

改名 創氏、命名 比較研究されよ 通知次第說明書送る 京城府新町 靜岡旅館 電話本局二七一五番

創氏及改名撰選大歡迎 京城府新町 京城創氏相談所

呼吸器補強! 世界的強壯劑 ネオトン 全國有名藥房販賣

女性行路 何春圖作詞 金海松(?)作曲 黃琴心 반달또는밤 旣人는가하늘! 그러고男性도드 르라! 이三分間의 女性哀史를! 女性이여모도마라! 빅타―레코―드



學藝

續新文學史 "新小說"의 "擡頭" (一九)

林 和

李人稙의 作品(續)

그原因을 作者는 이럿케說明햇다.

「모모가 밋기를 태산가치밋고 일가친척이 칭찬하고 동내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그 아들이 그다지 그릇케 되엿던가.

제 마음이 굴러서 그러케 된것도 아니오 남이 꾀어서 그러케 된것도 아니라, 그러면 엇지하여 그러케 되엿던가.

그때는 갑오 이후라, 관제가 변하여 감영의 원도 군수가 되고 관도는 십삼도 관찰사가 된때라. 엇던 부쳐님가튼 강릉 군수가 내려 왓는데 뒷배이 튼튼치 못한 고로 백성의 돈을 펑지노코 빼서먹지는 못하나 소문업시 갈가먹는 재조는 신통한 사람이라, 경향사는 정정수의 아들이 남의돈이라도 수중에 돈천돈단이나 조히 가지고잇다는 소문을 듯고 종놈을하여 불러 드려서 치켜세고 올려세고 대접을 썩 잘하면서 돈 며천량만 꾸어 달라하니 김소년의 생각에 그사람을 이니하면 하날모르고 벼락날 마짐것 하여 겁이 나서 강릉원에게 돈 몃천량을 손문업시 주고 벼이라 내가술 압혀고 잇는데 강릉군수보다 조정하여 버치게 세력잇는 판찰사가 불러다가 우스며 때치도시 면새조케 빼서 먹난중에 김소년이 최씨집 추수 작정한 돈을 제것가치 다써어새고 혹시 심려가 되여 별궁리를 다 하다가 허용이 뻣셕 나서 그모친이 맛하가지고 잇던 최씨집 논문서를 꺼내다가 빗을 몃 만량을 어더 가지고 서울로 장사하러 내려가서 한번 장사에 두손 툭툭 떨고 도라와 더라. 처음에 장사 나설때는 이번 장사에 군수와 판찰사의게 빼앗긴 돈을 어렵지아니하게 벌충이 되리라 십흔 마음이러니, 올라가서 어살을 하다가 생선 비린내만 맛고 돈은 물속에다 무러넛코 장사라 하면 지처리치게 되엿난대 그러케 낭패 본것을 그 부친의게 알리지 아니하고편지할때마다 거짓말만 하엿더판」

이가운데서 우리의 注目을 이끄으는것은 勿論「崔정수의 아들」이 어떠케 해서 낭봉이 나고 그것이나 鄕人에게 거주함을 해느냐 하는 理由보다도 그理由가운데 反映된 客觀的事實이다.

그것은 甲午更張이 朝鮮의 政治와 民衆生活우에 波及한 影響이다. 甲午更張을 通하여 相當히 만흔것이 새로워젓스나, 또한 그의 同時에 적지안히 肅肅한것이 新舊依然한대로 남어잇섯다. 어떤 意味에서는 이런것이야 말로 改革되어야 할것인데 不拘하고 그것은 依然히 存續하여 잇지 새로운 形式을 뒤것스며 지내지 인됏다 이러한 點은 甲午更張이 下部의 實力에 依한 改革이 아니고 上部로부터의 改革인 때문이며, 自主的으로 되어진 改革이 아니고 外部의 힘을 만히 빈 改革인 때문이다. 그럼으로 그 改革이 政治에 미친 影響은 主로 制度의 形式上 改變에 不過하며 따라서 民衆生活은 결국 形式만 새로워지고 本質은 別로 在來의生活에서 一步도 前進하고 잇지 못햇다고 할수가잇다.

小說「鬼의聲」의 前半部分이 이와가튼 歷史를 全般的으로 網羅하여 보입도이니요, 또한 이와가튼 小說이 그러한 歷史的主題를 解明해 갈수도 있든것은 自明한일이나 그러나 當時「에피소-드」를 通하여 甲午更張의 主要한本質에 接近하고 잇는것은 作者李人稙의 적지 안흔 藝術的才能의 結果라고 아니할수 업다.

官制가 變하여,「監司 원은 郡守가 되고 八道는 十三道觀察使」가 되엿스나 貪官汚吏는 消滅하지 아니햇슬뿐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官制에 相應한 方法을 가지고 여전 官員들에 못지안케 民衆의 膏血 搾取하고 잇섯다.

다시말하면 官制의 改革은 貪官汚吏의 民衆搾取를 消滅시키지 못햇을뿐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段階로 展開케 하엿다.

即「치고 빼앗는」時代에서「얼르고 빼앗는」時代로 轉換시킨것이다.

이것은 政治의 本質은 갓고 形式만이 變해진것 때문이다.

「정수의 아들」의 悲劇은 이段階의 典型的事實이기에 充分하다.

그래서도 이事實은 單純한 小說의 한「에피소-드」가 아니라 當時一般의 社會的 本質을 가진 歷史的事實이다. 作者가 두事實의 그러한 關聯을 意識햇다는것은 이小說에 充分히 나타나 잇다.

그것은 作者의 現實觀과 거기서 오는 的確한 描寫力의 所産일것이다.

젊은學生에게부치는글 ⑤

"學生道"의 "擁護"

京城帝大講師……金台俊

맛치 武士에 武士道가 잇는것처럼 學生에게 學生道가 잇을것이다. 武士가 武士道를 無視할때에 그

(社會) 의 運命이 實로 寒心한것처럼 學生이 學生道에서 脫線할때에 그 個人은 勿論이요 그民族,國家의 運命이 危殆한것이다 學生은 未來를 擔負한 責任이 重한 사람이다 「未來는 學生의것」이란 格言도 잇거니와 그나라 그社會가 未來에 잘되고 못되는것은 오로지 學生群이 明日을 爲하여 準備를 잘해두느냐 못해두느냐 하는데 依하여 決定된다. 學生의 責任은 未來의 活動을 爲하여 不斷이 그 原動力을 기르고 그 土臺를 닥고 準備工作을 하는데 잇스니 國家社會가 그들을 優待해서 이들레면 交通機關에 割引으로 라게하고 觀劇가튼데도 割引해주는것이아니가 그러나 學生으로서 이러한 恩澤을 감사히 느껴본사람이 能히 몃사람이 나될가? 더구나 언제든지 學生은 그나라 社會의 選拔隊임에라 就學年齡에 達한 兒童으로서 小學에 入學할수 잇는 사람이 몃%며 小學卒業生에서 中學에 나가는 사람은 몃%며 中學에서 專門이나

(大學) 에 나가는사람은 다시 몃%나되는지 살펴보라. 合格者發表의 榜을 보러 校庭에 모여갓든 多數한 父兄群은 애처러운 어린아이들의 雞업는 눈물을 흘러가면서 어린가심에 피로움는 遺恨을 哀訴할적에 비로소 入學地獄의 쓰라린 깁을 兒童群과 함께 體驗하엿을것이어니와 이校庭에 몰려들어 억개를 겻고 試驗을 치른 受驗者群까지 均齊되지 못한 父兄群과 兒童群이 이땅의 敎育統計의 大部分을 차지한다는것을 생각할적에 自己自身이 學生의 몸이 될수 잇섯다는 幸運은 언제던지 多數한 사람의 不運을 前提로하고 제비뽑듯 獲得한것이 만지 幸運의 選拔隊인 學生群들은 이 社會의 압날을 爲하여 스사로를 하임꾼이 되리라는것을 盟約하지안흐면 안된다.

아마 近世史의 一大驚異는 明治維新이리라 그짤막한 時日동안에 歐洲先進國의 몃百年동안에 와서야 노흔 文化를 輸入하고 消化한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全혀 明治初年에 無數한 學生群이 子는 決心을 품고 祖는 故國을 등지고 山을 넘고 물을 건너서 獨逸로

(英佛) 로 笈을 지고 留學해서 所期의 各各 自己의 배운것을 實地에 施用하야 先進者의 努力의 선봉이 에를러입다. 이世紀의 非常時에 태여난 將來의 커다란 責任을 질머진 朝鮮의 學生群도 能히 얼마나한 自負와 決心을 갓는지, 더욱이 바다건너 留學하는 數만흔 學生層에 期待하는 老婆心이 적지안흔것이다.

그러나 나는 學生의 儆戒,風紀, 思想……이런 方面으로 現代의 學生을 責하라는것은 아니다. 어느때 어느곳을 莫論하고 學生은 겨오롭기가 十常八九요 여간 風紀가 틀린것도 이야기가 되지안는다 四五十年前의 朝鮮學生들은 이웃집「닭」과「도야지」를 서리해서 먹는것을 常識이요 행낭어멈을 通이茶飯事엿다(朴英孝의 自敍傳이가튼것) 細川氏는 學生時代에 學友에게 손을 일고 告訴햇는데 그때 裁判의 判決文은「大吉도 當年에 또한이런일을 햇다」고 하엿다.

이른바 牛島의 最高學府엿든 成均館 學生들이 國家의 敎育行政과 館長의 事務措置가 正當하다고 보지못한때엔

(捲堂) (오늘날의 同盟休學)을 하고 다라나고 國王과 館長이 懇曲히 오라고 勸해서 온것이다. 國家가 넘석비에 對해서는 이와가튼 優遇를 하엿고 氣勢를 培養하여준것이다.

內地의 一高 三高는 아직그만구고라도 그와類似한 存在인城大豫科가 京城에도 잇다 거기에는 少數의 長袖,蠻勇派의 高下駄다」怪物派가「만또-」를 뒤집어쓰고 노픈 목소리로 校歌를 合唱하면서 本町네거리를 좁다는것처럼 亂步한다 그러나 이것도 數十年來 笑風으로 鞏固되여 어느程度까지 默認해온것이다.

이러한 習俗에서 어떤것은 稍稍이요 排撃할것은 形式이다 學生으로서 純眞하고 質樸하고 邊幅을 修飾하지안는點이 貴하지다 相對的한 蠻風學風을 獎然히 稱揚한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버릇이란 훗이 올챙이때를 잇는것이다 한學生의 惡風紀를 보면 곳 그것으로

(全體) 의 學生들을 더 프리하며 自己의 교만하게時代 一高 三高時代 이 學生風紀問題를 高談峻論하는것이다 學生의 敎育者 責任마튼 敎育者들는 어떠케하면 學生으로서 가장貴重한 純一 質樸 謙遜 高尙한 性格과 態度를 가질수가 잇도록 涵養할수가 잇는가를 생각할뿐이지 이 形式問題를 너머 拘束하는것은 그 精神까지 無精化시키는 危險에 이르러서는 안될것이다.

그러치 안허도 朝鮮學生은 漢漢한 氣象을 喪失하고 懷疑 憂鬱에 헤매는 그들에게 溫情업는 取扱을 加하는 前科者를 再犯三犯의 心理에 誘導하는것과 가틀것이다. 이러므로써 現在朝鮮의 學生은 비록 十數年前의學生들 보담도

(外樣) 으로는 떡 지하게된 代身에 나치게「야진」한 純一性과 正義感이 不足하고 卑利한 者의 뒤노는 偏狹한 現實을 바차고 먼 꿈의 世界를 憧憬하는 詩人의 懷抱가 적어진것 같다.

"動하는""哲學" 新秩序의研究에

【東京電話同盟】文部省內日本諸學振興會에서는 二十七日午前九時부터 省內會議室에서 和辻,桑田,戶田,伊藤(東大)田邊,羽溪(京大)河野(國學院)高橋(東北)四宮(九州)田中(東京文理大)川公(慶大)等各大學敎授가 出席하여 今年度 哲學部會 專門委員會를 開催하엿는데 東亞 및 世界新秩序建設과 時局下 哲學의 新動向을 中心으로 協議한 結果 第一回 哲學會를 六月二十七日부터 二十九日까지 文部省內會議室에서 開催하고 官公私立大學 및 高等學校,專門學校,哲學,倫理와 國史,宗敎,歷史,東亞 및 世界新秩序의 現狀其他 分科로 나누어서 二十五名을 限定하엿다 또 公開講演會는 六月二十九日 日比谷公會堂에서 開催하리라 한다.

土曜詩壇 天使의死

金 郁

北國서 天使가 죽엇다 죽은 天使가 北極처럼 엿다.

★

太陽과 詩人은 灰色의 旗幅을 녀라이로! 午後四時의 時間우에서 動亂의 西歐도 擾亂의 行列을 떠낫다.

★

하늘서 별들이 수만흔 별들이 紫服을 하고 用兵을 온다.

바람이 春子을 한다

머리칼을 더듬리고 몸부림친다.

바위가 꼬위처럼 날다! 나는 바위가 空間에 砲丸처럼 示威한다。 아롱도리 나무들이 허리를 구핀다.

江이 시퍼어런 어름판이 배를 갈른다! 배스속에서 五脈이 雷光처럼 뛰여나온다.

★

……五線紙우에서 피아노가 뛰여지는 니의 名曲集……

博脉의 봄

東風이 불엇스나 노고지리 우지지다
소치는 아히들은 상기아니 이럿느냐
재너머 사래긴 바를 언제 갈려 하느니
古時調

어떤날의……思索 ① 闖入者의手記

金宇鍾

「파-테」는「親和力」속에서「諦念」을말햇다 自己의藝術的情熱이어떤 現實的인「슬럼프」속에 沒落케될때에 그는自己生來의 고려대치는 모─든 生動的인「라이푸·포-스」를 制約하며 또한 頹落시키면서 乃終에는 美化한

(諦念) 의 安息處를 찻는것이다.

그러나「파-테」가 運命的인 諦念을 追求하며 現實的 憬憧을 美化한것은 그의 小宇宙의 舍는 嘗試圈內에서 생긴 個性的인「파라-진」다.

超時空的인 孤高한 性格의 扮戱的表現이라고 보아진다.

모─든 慾求와 悲觀과 幸福感을 招致할려는 마음의 瞬間가그의 藝術的理念의 再整을 招致한것이다.

그러면「파-테」는 世界精神의 藝術的 限定에 非現實的代辯者인가……

그것도 아니다.

그는 永遠한 普遍的인 目的을 把持하기為해서 邁進하는 眞理의 探求者엿다. 그는

(常識) 의 努力圈內에서 眞善美한 藝術的信念을 찌뚤코나갈려고 애쓴 知性人이엿다. 모─든 不義와 歪曲化한 背理와 悖德을 嫌厭하며 天來의 人間性의 具體的表現을 할려고 藝術的 精神의 集中化라고보아진다.

나는「파-테」의 이 運命的인 諦念을 나케한 動因을 찻는다.

마치 어떤 回顧的인 雰圍氣속에서 徘徊하던 "하이네"를 回想케한다.

"하이네"는 "푸쉬킨"의 鄕愁한 瞬間에다 "보랄 잇든 生育을 시킨 偉大한感性人이다.

古典的인 精神的 亂史에도 큰 足跡을 내린 그는 積極的 意匠의 能編者다.

그는「로맨틱」속에서 "파-테"와가튼 心境에 處해질때에 "나는 때앗앗을 꿈군다"라고 睥睨했다.

時代의 "波瀾과 潮流의 欄干"을 가진 그는 "바다"를 自己의 胸襟속에 가지고 잇는 外界의 風風에도 사나운暴風에도 反應하며 自己自身을 變化시키며 가끔 그것은 한生涯동안 설렘고 잇는 깁는 "바다"엿다라고 "歸鄕"속에서 노래햇다.

勿論藝術的感性은

(共感力) 이다 그共感力을 갓고잇는것은 時代의 感覺 또는 主體的條件의 差異,個人的性格 또한 視覺의 高低等에 依해서 左右되는것이다.

우리들은 歷史的視覺을 通해서 畵에 "파-테"보담 퍼뒤떠러진 深鄕을가진 "하이네"가 어떤다른 意味에서더 高次的 意識의 解釋를 보여준것은 그의 知的深이 아니다.

다만 "파-테"에게 엇지된 藝放的 氣魄이다 內包的인 個性을 가진그가 어디까지던지 實義하개 表現할수잇는 "다이나믹"한 行動을 持續할수잇는 力量이다.

그가 "伊太利紀行"속에서 다음과 가치 말한것은 너무도 有名한 嘆言이다.

"언제나 나의 相後에 月桂冠으로 裝飾할것인가……"。 나는잠깐 몰으겟다.

(詩人) 으로서의 名聲에 큰 價値를두지아녓다.

나의노래가 모─든사람이 讚仰하나 非難함을 나는조금도 關係치 안는다.

그러나 칼(劍)을 나의相後에 노치 안호던 안된다.

나는人類의 ×××의 勇敢한兵士였스므로……」라고。

지금의「쩌네링文」에서는 懷疑를찻기쉬운것이다.

모─든것이 오조리는 가을바람처럼 凋落을 象徵하는듯한 感을 느낀다.

파오래된일이지마는 鄭飛石氏는 懷疑를讚仰햇다。

그懷疑를 形象化햇다고 말한것을 보것이잇다.

어떠한 部類의 知識人들은 이 懷疑的精神을 高度化시키며 또한 거기서 發展的規制를 내릴려고 한다.

(懷疑) 가 업는곳에는 發展이업다고 말햇다 懷疑는 모─든生의 意識의 基本的인 要素라고말햇다.

"찔라이"는 生의 意識과 懷疑를 對位시켯다. 이것이 그의 精神科學的 世界觀에 「뱀레단」그러면 이 懷疑는 美德인가……

나는 그것은 正常的 諸段階에서 無規範的인 過脫을 招致한 流動的인 觀念이라고 생각한다.

隨筆 失鄕記 (下)

李 燦

寒夜月

그곳은 特殊한 環境이나 憂愁기픈心情을 除之하고 달은 그어디서 그두가 보나 興趣기프것이겟지만 寥寥한 三水山川 日來 밤마다 對하는 朗朗한 달은 文字그대로 山間僻地가 아니라 修萬頃蕩野를 비치는달이 보든 눈 맛는가슴에 浩浩漠漠의 精氣를 깃드린다면「메이브림트」의 한鄕心에서 우리러보는 달은 이젓든田園의 甘美한 鄕愁나 부르는다할것이나 거센봉오리, 도노픈峻嶺으로둘리우고 임떠러진 양상한숲 거도 매섭단 荒凉한大田에 무친 靜地間 다만 우으로 蒼蒼히 티운 一碧蒼空에 빗긴달은 그러나 애태우다 못견디어 차저온 千里遠方 그이의 懇懇한 얼굴인듯 凋惡고십게 임맞고십게 한없시 살뜰고 정다웁고 귀여웁고 사랑스러운것이다.

하로業務를 늣마치고「모ㅣ던」갓진 토막를 뒤로지해업는「스닉」을 江邊에ㄲ으니 싸─늘히 옷깃에 숨여드는 氣流에 멀리따사로운 픔해처고 기다리는 엄마인양, 한결정다히 肉迫하는그의表情이 볼만한듯 千里遠鄕 不忘山下에 찻든이업는 終月을 외로히 누엇슬 亡母의 그리운그리운 幻影을 볼려 나모르는게 눈두던을 도겹게한 저녁도잇다.

南方郵信

으레 午後네시만되면 給使아이를 채집하야 郵便所로 보낸다. 午後네시가되면이 아니라 午後네시를 기다려 그럿탄이 安否를 헤이지도모른다.

午後네시─는 하로한번 南方郵信이 到着되여 大槪私書函에 들어오는 時刻이다.

가사 南方 어느곳 그어느 斷한 마을에 내온 간직한 相思不忘의 그가잇다기로서니 아무런들 제手足과 제生活을가진 그에게서 어찌 나만을 위한날에 날마다의 雁信이야 바라랴.

말하자면 旣이고 大門편 바라보는 마음 「오늘도 그무슨……」하는 허망한 기다림이 不知不識間에 깃드린 어설픈 習性즉 내가가진 이고장의 唯一한벗이오 도한 단하나남모르는 내마음의 戀人이기도하다.

當選漢詩

滄東考選

春寒 三等之二

京城府通江町一五二 小倫 張永秀

東風剪剪拂闌干
正覺春天料峭寒
動住化心丹未吐
展開柳眼綠初看
一江雨色添滋潤
半夜雷聲起蟄蟠
茶歇酒醒侵曉冷
擁衾坐睡夢猶殘

評日 第四句押六句與團鮮相 漢籍通所法取影亦無不可

漢詩募集

滄東考選

題 養鷄
押 齊韻部
期限 四月十五日(締切嚴守)

孫子講義

李昇圭

軍爭篇(六)

是故로 朝氣는 銳하고,

(註) 陳皥─曰처음으로 온氣가 바야흐로 盛하니 더우러다

(通解) 이럼으로 아침의 온氣 士의 氣는 銳하고

晝氣는 惰하고

(註) 王皙이曰漸 오래되면 소곰게 줄어지느니라

(通解) 낫의 士氣는 게을느고

暮氣는 歸하나니

(註) 王皙이曰 게을느미 오래되야서 도라가기를 생각하므로다시 사후勇氣가 업나니라

(通解) 暮氣는 도라가나니

故로 善用兵者는 避其銳氣하고 擊其惰歸하나니 此는 治氣者也니라

(通解) 故로 用兵을 잘하는 者는 그銳氣를 避하고 그惰歸할지나니 이는 氣를 다스리는 者니라

以治待亂하고 以靜待譁者는 此는 治心者也니라

(註) 賈林이曰 我의 整治하므로써 敵의 擾亂을 기다리고 我의 淸靜하므로써 敵의 譁譟를 기다린다는뜻이라

(通解) 治로써 亂을 待하고 靜으로써 譁을 待하는것은 이는 마음을 다스리는者이니다

以近待遠하고 以佚待勞하고 以飽待饑는 此는 治力者也니라

(註) 杜佑─曰 我의 近으로써 敵의 遠을 기다리고 我의 閑佚로써 敵의 疲勞를 기다리며 我의 充飽로써 敵의 饑虛를 기다린다는 말이다

(通解) 近으로써 遠을 待하며 佚로써 勞를 待하며 飽로써 饑를 待하는것은 이는 힘(力)을 다스리는 者이다

無要正正之旗하며 勿擊堂堂之陳이니 此는 治變者也니라

(註) 正正은 號令이 整齊한 貌樣이오 堂堂은 部伍가 盛大한 貌樣이라 要는 邀擊이니 卽마저치단말이라 陳은 敵의 運勢가 張盛하단 말이라

(通解) 正正의 旗를 要치말며 堂堂의 陳을 擊치말지니 이는 變을 다스리는 者니라

故로 用兵之法은 高陵을 勿向하고 背邱를 勿逆하며

(註) 杜牧이曰 向은 仰也오 背는 倚也오 逆은 迎也니 敵이 高處에 잇거든 仰攻치말며 敵이 邱山을 倚하여 오거든 迎擊치말지니 이는 下로부터 高에 擊하는 者는 힘이 不足하고 高로부터 下에 擊하는 者는 形勢가 順한까닭이라

(通解) 故로 用兵의法은 高陵을 向하여 치지말고 背邱를 거스려 싸우지말며

"市內""各中學""入試問題"

中央中學 國語科(丙の續き)

三、次ノ文ヲ解釋シナサイ。

輝く太陽の光にも、もえ初めた木々の綠にも、春のいぶきがいきいきと感じられる。春が來た、物みなが新しい榮に向ふ春が來た。此の若き力に溢れる天地の春こそは、伸びゆく日本のすがたであらう。

四、次ノ文中片假名ノ所ヲ漢字ニ直シナサイ。

天氣圖によると天氣が(ソウ)サウされるばかりでなく、暴風雨の(ハツ)セイが分かるし、また(コウ)カウの(ホウ)ハウ(コウ)カウをや(ソク)ド(サツ)することが出來る。そこで暴風雨(シユウ)シフライのおそれがある場合には觀測所や測候所はいち早く(ケイ)ホウ(ハウ)を發して(サイ)ガイの(ボウ)バウに努めてゐる。

(丁)

(一)次ノ文ヲ讀ミ(イ)(ロ)(ハ)(ニ)(ホ)(ヘ)ニ答ヘナサイ

昔、泉州堺のなにがし寺に、或董師久しく寄食してありけるが何一つ藝がくこともなく、毎日遊び暮して既に數年を經たり。(イ)住持は心得ぬ事に思ひて、或日其の董師に、「君は藝を以て一家を成せる人なるに、數年の間一度も筆を取り給ひし事なし。我もとより衣食の費をいとふにはあらざれど、何時までもかく(ロ)ておはすべきにあらねば、今は何處へなりとも行きて君の技をふるひ給へ。(ハ)愚僧も所用ありて京に上り、或は一二年滯在せんもはかり難し。」といへば、董師「そはいと名殘をしき事なり。(ニ)さらば報恩の爲に何か揮きて參らすべし。」とて、(ホ)心得せし樣なりしか、

(イ)『心得ぬ事に思ひて』ノ意味ヲ答ヘナサイ
(ロ)『かくておはすべきにあらねば』ノ意味ヲ答ヘナサイ
(ハ)『愚僧も……京に上り』ヲ『愚僧も……京に上り』トシタラ意味ガドンナニチガッテ來マスカ
(ニ)『さらば』ト言ツタ言葉ノ意味ヲ答ヘナサイ
(ホ)『心得せし樣なりしが』ノ意味ヲ答ヘナサイ
(ヘ)『何事も取らで』ノ意味ヲ答ヘナサイ

二、次ノ傍線ノ所ヲソレ〴〵同ジ意味ノ言葉ニ直シナサイ

例 先生が先程御見えになりました。(おいで)

支那政府の手を離れてゐる。
大手をひろげる。
正國の首は酒止の手に入りぬ。
村人たちは彼を相手にせず。
處々に手を加へて容貌を改めてゐる。
人のゆくてをさへぎつてしまふ。
のみの手を休めない。
きうじが行届く。
向ふの山が薄墨色に暮れて行く
心ゆくばかり晴々しい處である

三、次ノ文ヲ解釋シナサイ

或時のことである。雛卿は夜もすがら靜坐してひたすら想をこらしてゐると、やがて一點の明星がきらめいて、夜はほの〴〵と明けそめた。

四、次ノ文中片假名ノ所ヲ漢字ニ直シナサイ

各國の國旗は、或は其の(ケン)コク(レキ)シ(アン)ジ(ソウ)サウ(リ)を、或は其の國民の(アラハ)すものなれば、國民の之に對する(ソン)ケイは、即ち其の國家に對する(チユウ)アイ(ジヨウ)ジヤウの(ハツ)ロなり。

잃어버린靑春을 回生식혀주는 精力補强劑

ダン Dan 단

늙음에기력이없어 슬픔없은날을보내시는분이나 아직그런나히도안인데 몸이쇠약되고 精力이不足되시는분은 多元的全身호르몬을振興식혀주는 綜合性의活性호르몬劑「단」을복용하여주시면元氣왕성히 즐거운날을보내실수있게됨니다

服用된本劑「단」의성능은 睾丸 卵巢 腦下垂體 松菓腺 副腎 副腎皮質 膵臟等에 준세인生命力을수어서 이것들을有機的으로활동식히는同時에 腦神經作用파로개 건전한生理的活動파臟器와器官의활곡파機能亢進作用을 强力하고도 敏速히하여줌니다

上記와같이 卓越無双한効果가잇는本劑「단」은양기가부족하신분·속히늙어지서 한탄하시는男女·不感症·性機能이衰弱하신분·夢精·早漏·遺精·陰萎·性的神經衰弱·性器發育不全·動脈硬化·血壓亢進·몸이허약하신분·視力減退等에

★全道有名藥店各位께急告! 驚異的賣行을거둡보이고잇는本劑「단」을一層더擴賣하여주시사貴店躍進繁榮의열쇠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D-K-83

……약 가……
五十粒……三圓五十錢
百 粒……六 圓
二百粒……十 圓

全道有名한藥房에있음 뭇지하시는대로「性의健康法」을무대로진정

日本生化學研究所 東京市……百十二ノ三 振替東京六六七九番

一般賣藥·衛生材料 合名社新藥·化粧品

卸 新井藥房 대도매정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支那新政權과大陸經濟展望 ⑥

民族資本의復歸

支那新政府의任務

北, 中支의 兩國策會社系下의 重要產業以外에 所謂自由企業으로서 紡績, 製粉, 燐寸, 土木建築, 製材, 製紙, 鐵工等 多數多樣의 邦人의大小資本이 大擧에 進出하고잇다。以外에 軍管理에 關하는 鑛山, 工場은 北支에서는 山西省을 中心으로 近二十參個, 百十數件, 中支에서는 二十七參個, 九十件 合計二百(全)에 達한다。此等은 邦人當業者에게委託하여 經營하여왓는데 所有中國人側의 意向을 考慮하고 當業者의 返還을 聲明하여 十八日의 西尾支那派遣軍總司令官의 軍管理鑛, 工場의 返還聲明等도 發明하엿든바와 가티 秩序가 回復됨을기대리어 新支那建設을 좋아될것이다。

支那民族資本이 復歸하는 것은 新政權下의 重要政策의하나이므로 不得已한 事情이다。그리고今後는 日支共存共榮의 立場에서 日支資本의 提携를 實現시켜야한다。軍管理工場의 現狀은 山西省太原에 前에 閻錫山이 山西省을 主宰하던時 工業을 經營하고잇는 것이 近四十에 達하며 軍管理工場의 모델로서 들수잇는데 大體로 其規模는 內地의것에 比하여 相當히 狹小하여 조금 改良함에 依하여 利潤을 어둘수잇서 統制를 强化하여도 조흔만큼 好化되엇다고해도 新政權下에 治安이 回復되면 充分히 支那資本에 依하여 經營될수잇을것이다。從來 我經濟進出方針이 明示되지 안헛스고 占領地域內의 有力한 工場 鑛山을 占有한데 對하여 支那民族資本이 매우 懷疑的이고 力하는것이 和平의 現階段에잇서서의 任務이다。新政權는 다시第三國資本의 利用까지도 併用하고저 하나 全支那에 擴居한 英米를 爲始하여 抗日的이엇섯는데 第三國資本의 援助는 新政權下의 民衆의 擁護를 克服하고 新政權은 建設의促進에 努力할것이다。新政權의 完全한 育成은 이외가튼 十萬民族資本을 導入시키어 經濟的 提携의 地盤이 되게하자는 것이다。今後도 民族資本의 復歸工作은 꾸준히 努力할것으로 보여 新政權은 이러한 政策에 依하여 重慶政權의 經濟工作에 對하여 一時에 米關係를 調整할때에 一時的이고 엇다 이가치 日支의 提携는 第三國資本의 援助와 新政權下의 經濟的 揚子江의 開放은 對外的으로 想像하는바 가 되는곳이 揚子江이다。第三國의 經濟的中心地인 揚子江의 開放은 一般으로 想像하는바와 가티 될것이다。

發達되엇섯는데 江浙財閥의 背景인 上海의 港을 利用하려 하고 江浙財閥과 重慶政權과 協力하게될지 今後에 가서 重慶의 支持者인 上海의 地盤을 中心으로 支那商工業者와 邦人과의 提携가 잇는 것이다。占領地區內의 經濟資源을 開發하자는 것은 物資의 出廻가 現在는 極度로 不振하다。日支의 提携는 具體的으로 잇서서 沿岸地方에서는 米, 棉花, 麻, 桐油, 豚毛等의 物資의 出廻에 制限을 加하여 다시 蒐集하여 各方面으로 輸出되고 잇는 것이다。北支, 蒙疆은 揚子江의 開放과 함께 一任이다。新政權의 努力 여하에 依하여 이 理論的으로는 可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邦人資本의 實權이 미쳐 ... 軍官署의 管理下에 支那側의 自由意思와 調和된 手段으로 支那自身의 手로 되는 揚子江의 開放은 新政權에잇서서도 長命題이다。事變前보다도 新政權의 揚子江政策은 더욱 注目될만한것이다。(完)

닭까는도히만이돈

闇取引의盛行과"資金回收不進捗"

鮮銀券膨脹眞因究明

最近鮮銀券의 膨脹이 顯著하여 近者數日은 月末關係도 잇서 連日四億四千萬圓臺를 維持코잇는데 이러한現象은 確實히 인플레의 傾向이 濃厚하게 兆해진것이라고 金融界로서도 그 眞因을 究明하는 同時에 愼重한 態度로서 注目하고잇다 이러한 最近의 通貨膨脹은 果然어디 그 原因이잇는가 各種各樣의 觀測이잇스나 金融界의 意見을 綜合하면 大體如左한것으로 보힌다

一、例年減少期에入하는 米穀資金이 今年은 特殊한 統制方針으로 米穀이 停滯되고 從하여 金融이 長期化하여 回收가 안되는것 이러한現象은 當面米穀뿐아니라 重要物資에도 보이는 現象인것

二、時局한 闇取引이 거의 現金으로 行해지는것

三、從來短期의運轉資金은 商取引의完了를 기대려 卽時回收되는것이 普通이나 資金調整法의 强化方針과 銀行獨自의 貸出抑制方針에 脅威되어 資金을 銀行에 返濟치안코 現金或은 他金融機關에의 預金으로 退藏하고잇는것

銀行預金利下

尚未得結論

鮮銀原案作成에着手

朝鮮內各金融機關의 預金利下에 對하여서는 二十八日 金融團總會에서 協議하엿는데 利下率에 對하여서는 金融機關의 立場으로 아직 相當한 差異가 잇서서 結論을 엇지못하엿스나 大體利下에 對한 各行의 態度가 大略明瞭케되엇스므로 다시 案을 研究키로 하고 大體金融團의 幹事인 鮮銀이 中心이되어 原案을 作成하고 來月中旬 金融團의 最後的 總會를 열고 正式으로 決定키로되엇다 그러나 이에 對한 總督府의 方針도 잇스므로 永田財務局長의 歸任을 기대려 原案에 關한 協議를 進行키로되엇는데 結局利下는 五月以降이 되리라한다

滿洲大豆

强制收買實施

滿洲國에서는 二十三日 大豆, 高粱, 包米, 粟等의 主要食糧品에 對하여 强制收買를 決定하고 二十三日 產業經濟共同部令을 發하여 卽日實施하엿는데 이에 依하면 主要糧穀業者는 二十三日 現在의 在庫高를 省에 報告케하고 右在庫品은 移動을 制限하며 또 統制會社에 讓渡를 命할수잇게되어잇서 右强制收買決定으로 朝鮮向의 粟 其他 食糧의 出廻도 크게 增加될것으로 朝鮮側으로서도 크게 期待하고잇다 卽强制收買는 糧穀業者에 限定되고잇는데 此等業者에 依한 所持는 相當量에 達하고잇스므로 이만큼 完全히 統制會社가 買上하게되면 朝鮮內의 供給은 어느程度 餘裕가 생길것으로 滿洲에서는 內地보다도 朝鮮에 輸出의 主力을 傾注하고잇는것과 相俟하여 今後의 輸入은 增大되어 朝鮮內의 雜穀需給逼塞은 크게 緩和될것으로 보인다

弱體金組는解消

金組聯의 對金組方針一變!

金融組合聯合會에서는 朝鮮內의 缺損組合及 이에 準할 弱體組合에 對하여는 從來 積極的으로 業務의 進展 打開策을 樹立시키는 同時에 聯合會에서 援助資金을 支出하는 等 極力 振興促進을 期하여왓스나 此等 弱體組合中 現在 標準貸出貸付金利의 高率인것에 對하여는 可及的速히 標準金利로 引下시키는 同時에 該組合의 區域內의 經濟力이 貧困하여 自立할 수업는 組合에 對하여는 行政官廳과 聯絡하여 緊密한 調査를 한後 解消시킬 方針이다

金組聯支部長會議

朝鮮金融組合聯合會에서는 五月中에 全朝鮮支部長會議를 召集하여 今年度의 新規事業計畫에 對해서 指示協議를 하고 繼續하여 同月中에 總代會를 開催하고 前年度 決算承認의 作成을 附議할터이다

税制改革과

金組課税問題

今次稅制改革에 伴하는 特別法人稅로서 朝鮮에 잇서서도 金組에 對한 課稅가 問題로 되어잇는데 朝鮮의 特殊事情으로서 組合員의 拂込出資金이 僅少하여 比較的 利廻가 好率로 되어잇스나 單只 利益만을 目標로한 課稅는 무리하고 金組로서는 剩餘金 積立에 依하여 組合의 基礎를 强固히하여 庶民階級에 對한 施設을 爲始 國策에 沿한 金利引下 等에 全力을 다할것으로 가장 妥當한것이라하고 잇다 그리고 假令 內地가 百分之七의 課稅標準으로 한다면 朝鮮은 百分之三 或은 百分之四를 最大限度의 課稅標準으로 할것이라하고 잇는데 前記事情을 考慮하여 金組에 對해서는 課稅의 圈外에 두는 것이 要望되고 또 課稅한다하면 比較的 資擔力이 잇는 組合員의 配當金 或은 特別積立金에 對하여 課稅하면 配當金은 自然的으로 制限하는 同時에 積立金을 만케하고 또 金組에 對한 組合員의 投資는 他의 企業投資와 달리 合理的일것이라하고 잇다

金組聯國債保有高

金融組合聯合會의 現在公債及社債保有高는 如左한데 이에 對한 預金額은 一億三千五百七十萬圓이다 (單位千圓)

國債	九、二七四
地方債	九、六三三
社債	三、六九〇
株式(殖銀株)	一八七
合計	二三、七八四

日本酒理研酒

價格公定

四月一日實施

日本酒理研酒의 公定價格答申案은 審議할 總督府 物價委員會 第一專門委員會는 二十九日午後一時 財務局長室에서 開催하엿는데 課稅關係로 實施를 急히하여야겟스므로 一般物價委員會는 開催치안코 專門委員會의 答申案으로 公定物價를 公定하여 四月一日부터 實施키로 決定하엿다 公定價格은 生產코스트에 伴한 値上과 增稅率을 加한것이다

石油業聯盟總會

朝鮮內 石油供給者側의 團體로서 過般結成된 朝鮮石油業聯盟에서는 二十九日午後四時부터 朝鮮支部에서 總會를 開催하고 會員約三十名出席 昭和十五年度

"世界的意匠家"슈"夫人이본

朝鮮輸出工藝品將來

外品을模造치말고特殊性을살리라

菓子器, 竹細工品이有望하다

世界的意匠家로서 名聲잇는 獨逸의치리·루림·슈레만 夫人은 去二十六日에 入京하여 二十七日夜北支視出로 滿國한바 朝鮮輸出工藝協會에서는 저난二十七日午後三時부터 商工獎勵館에서 同夫人을 中心으로 朝鮮內輸出工藝關係者等 出席下에 懇談會를 열고 協議하엿는데 朝鮮內 輸出品의 將來性에 對하여 多大한 暗示를 바더 效果를 거두엇다 卽同夫人의 說에 依하면 今後朝鮮工藝品의 海外輸出品은 菓子器 竹細工等 簡素한 製品이 有望하고 日本國民의 性格에 맞는것이 歡迎엇는다 從來의 日本으로서의 輸出品中 工藝美術品等이 不評인 原因은 外國製品의 模造品이 만타는것이고 本來의 日本品이면 競爭者도 업고 歡迎獨占할 可能性이 充分하다 輸出貿易의 取引上의 缺點은 出工藝家와 貿易業者의 連絡不統一에 잇는데 優秀美術品도 貿易業者의 손에서 處分되어버리고 海外에 내는것은 조혼것이 輸出되지안는다 이點을 輸出工藝協會가 充分考慮하여 對策을 講究할 必要가잇다

磅貨急反撥

三弗六十仙으로恢復

【紐育二十八日發同盟】崩落도 崩落도 거듭해오던 紐育市場의 磅貨는 今二十八日에는 三弗六十仙으로 昨日最終價에 比하여 一擧에 十仙七이나 一躍回復을 보엿다 이回復의 原因으로서는 左의 二點을 들수잇다

一、國務省이 萬一 磅貨의 低落이 米國商工業에 不利를 招來할兆候가 보일時는 곳英米互惠通商協定의 擁護條項을 全面的으로 援用할 用意를 가지고 目下 深大한 注意를 하여 磅貨의 動向을 注視하고잇다는 報道가잇섯든것

一、今回의 爲替管理規定으로 투러 고무가 除外되어 十磅으로 이를 賠償할수잇도록 할지모른다는 所聞이 떠돌고잇는것

뿌라질銀行

磅取引停止

【리오데자네이로二十八日發同盟】英國의 爲替管理强化에 따라 最近의 磅貨의 落潮가 急한때에 뿌라질銀行에서는 今二十八日 磅貨取引을 停止하고 明二十九日부터 實施할것을 發表하엿다 同銀行은 右磅貨의 取引停止는 一時的으로 事態가 改善되면 直時再開할것을 强調하고잇스나 停止期間이나 制限理由에 對하여는 明答을 避하고잇다

豆粕의配給減少

農會配給에큰支障

本肥料年度는 無機質肥料의 減少에 依하여 有機質의 大豆粕, 魚粕等으로 카버-하고저 大豆粕은 物動計畫에 따라서 總督府에서 滿洲國에 二萬三千四百噸(바라粕을 包含)을 要求하고 大體成立되엇스나 專賣公社로부터의 原料大豆配給이 困難하게되어 當者總督府의 尾崎技師가 大連에 出張하여 折衝한 結果 安東組合에 對해서 朝鮮向大豆로서 二百車의 配定을하여 이것은 朝鮮農會의 新義州配合所에 充當코저 手配하엿는데 其中百六十車만은 日陞公司에서 配定을 밧게하고 殘餘四十車는 他組合員의 持分이므로 入荷를 되지 疑問이다 百六十車의 日陞公司持分도 昨年은 約今의 實績은 百八車(豆粕으로 約三千噸)와 北鮮製油에서 豆粕으로 二千五百噸이 新義州配合所에 充當케된바 殘餘가 全部도 러운다하여도 農會配合用으로서 一萬五千噸의 豫定에 對하여 四割六分인 六千九百噸의 實績박게 엇지못하여 結局五割四分의 不足을 招來할것이므로 農會配合肥料에 支障을 招來할것을 憂慮하고잇다

豆粕用大豆

또百車要求

總督府에서는 專賣公社에 對하여 安東組合에 朝鮮向豆粕用으로서 原料大豆二百車의 配定決定은 目下 別項과가치 入荷를 보고잇스나 이래서는 新義州配合所의 需要豆粕의 不足을 招來할것이므로 다시 新規로 同組合에 對하여 百車(豆粕으로 二千七百六十噸)를 要求한다 果然入荷될런지 可疑問으로 左右間에 總督府로서는 要求量을 通過되면 豆粕의 不足은 九千六百六十噸이 되겟스나 結局 殘餘五十噸의 不足은 되엇다 一部는 計畫을 補充코저

日本鐵鋼聯創立

【東京電話同盟】鐵鋼統制의 一元化를 目的으로한 鋼材聯合會의 改組擴充에 關해서는 商工次官通牒이 發送되엇는데 鋼材聯合會에서는 右通牒에 基하여 聯合會規約을 改正하고저 二十六日 丸之內鐵鋼會館에서 臨時委員會를 開催하고 商工省으로부터 鹽谷鐵鋼局長 保科事務官이 出席하여 新規約을 附議可決하고 名稱을 「日本鐵鋼聯合會」로 改正하엿다 그리고 會長及副會長은 委員會로 互選한結果 會長에는 中松眞卿 副會長에는 澁澤正雄氏가 各各 選任되엇다

北支肥料界에서

鰮粕輸入에着目

朝鮮依存傾向濃化

日滿實業協會에온 情報에 依하면 北支農業의 振興과 產業開發에 緊急不可缺한 肥料의 極端的 缺乏된 需給狀況은 想像以上으로 深刻化하고 그 代用肥料의 硏究와 入手對策이 講究되는데 北支製油界의 各油粕이 代用肥料로서 應用되는 傾向이 最近에 特히 顯著케되고 硫安은 杜絶되고잇서 今後一層激增이 推測되는 一方 朝鮮產鰮粕輸入에 着目하는 中이다 今後 北支의 代用肥料의 朝鮮依存의 傾向이 濃厚化되는 中인것은 자못 注目된다 北支의 製油粕肥料消化의 擴大는 粕市勢의 昂騰을 誘致하고 現在 棉實粕은 百斤十三圓五十錢으로 昨年同期에 比하여 約三倍以上의 狂騰을 招來하엿다

三井硫安

入荷不捗

本肥料年度는 輸移入肥料의 不足으로 總督府의 米穀增產計畫에 支障되는 一方 南鮮에서는 麥肥의不足으로 農家는 困難한狀態에잇서 總督府에서는 麥肥를 中央組合聯合會에서 供給키로하여 三井硫安의 輸移入으로 配定되엇는데 三井硫安은 月上旬의 配定一萬三千噸에 對하여 겨우 五分에 相當하는 六百噸이 入荷되엇슬뿐으로 三井物產支店에서는 住友硫安의 當着을 不拘하고 契約數量이 不足이 됨에도 거의 豫定대로 實施될 수잇다고하여 三井硫安만이 昨年의 實績을 거두엇슴에도 不拘하고 不足되는 條件 入荷는 豫定대로 實行치안는 形便인데 更에 北支에잇서서나 今年에 잇서서 尾崎技師는 佐野技手를 帶同하고 二十三日 「아까쓰끼」로 急遽東京하여 實狀을 調査하고 內外地肥料業者와 對策을 講하고저 出張하엿는데 그結果는 매우 注目되어잇다

國內向生糸積立金

四月一日부터實施

生糸業의 維持安定을 期하는 生糸業積立金制度는 輸出向에 對하여는 今年一月一日부터 實施中인데 國內向에 對하여는 四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 決定하고 右에 伴하여 朝鮮製絲業令第三條에 依한 施行規則을 發布하기로 決定하고 目下 府令을 改正中으로 二、三日中에 發布하는데 積立率은 內地와 같고 千六百圓以上 千七百圓까지는 三圓, 千七百圓以上 千八百圓以上은 七圓으로 되어잇다

○東京電話 東洋紡績株式等 大量의 買物에 依하여 北支에 對한 輸出을 一時 停止하고 또 朝鮮에서는 本社의 天津에 京城에 出張所를 開始하기로 되엇다 同社는 本社를 設置할 豫定으로 朝鮮貿易協會內에 設立하고 輸出品의 加工에 對하여는 滿洲或은 朝鮮內에 工場을 設置할는지 未定이다

經濟消息

▲草間秀雄氏(日本産金振興副社長) 渡東中 卅一日 歸任

▲阿部千一氏(同社朝鮮支社長) 同上

十錢

▼…돈, 돈, 돈 요사이 벌적 돈이 만히 나돈다。大體와 이리 돈이 흔해졋다。

▼…軍需景氣도 업는 朝鮮에 이것이 웬일이냐고 걱정이 분산。

▼…物資不足 物價高로 闇取引이 만하져서 現金이 만히 나돌고 銀行에서 돈을 찾추지 안는 다니까 한번 부어쓴 돈은 갈지 못안코 이리저리 돌리는 때문。

▼…月給장이 들은 웬일인 노릇 그러다 돈이 흔하다고 들떠서는 안된다。

▼…工藝品을 輸出하려면 어떠케하면 조흘가。世界的 權威인 獨逸의 슈夫人 말씀하시대 特殊性을 살리라고。

▼…當然한 말이오 만은 工藝品 振興에는 한두가지 條件이 아니고 短時日에 效果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難點。

▼…輸出工藝協會가 活動하는것은 多할하겟거니와 조혼 官民一致 努力이 要請되는 바 如何。

株式

軟調裡에

浮動

今日의市勢 二十九日

前場軟合　今朝는 東新三低인 百四十圓一, 鐘紡八低인 百七十圓七　鐘紡新이 不變인 百十一圓六이 寄付된後 膠着되어 凡調를 呈하다가 結局 東新百三十九圓九, 鐘新百十一圓五에 大引

市場의表情

…一般은 百四十圓關門附近을 떠나지 못하고 잇다▲現物方面은 資源株를 中心으로 買氣가 잇는 모양이나 아직 市勢의 全般은 左右할程度는 못된다▲五月末一高를 期待하고 上分伎를 豫見하고 잇섯스나 그것도 疑惑▲이제는 新甫에 對하여 期待를 가질수 밧게 업것스나 格別한 材料업시 好況을 바랄수도 업을듯

今日財界 廿九日

◆米穀(京城、公定價)

正租㊤銀坊主 三等斗 三錢、玄米㊤銀坊主 四等 石 四圓、七分搗白米 小賣價 同 四圓

◆雜穀(京城, 都賣價公定)

大麥	一六〇斤	天圓三
裸麥	二二〇斤	元圓三
粟	二二〇斤	三圓
大豆	船山三等	三圓

◆株 (單位十錢) 今日後止 比前日後止

朝	新	低
東	新	低
鐘	紡	低
鐘	新	不變

◆商品(先限單位錢・厘) 大阪 今日前止 比前日後止

綿	花	休會
綿	布	休會

保合은더繼續?

新中央政府의成立

後場保合　後場은 東新三百十九圓六, 鐘紡百七十一圓一에 保合하여 鐘新百十一圓에 大引

主要株의利廻

最近三個年推移

一個月에 直한 大保合商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잇는데 金融緩慢을 背景으로 一般大體로 正株가 不足되는 狀態이며 또 年度末 放出되는 一方 政府 資金은 現在 不動의 態勢인 新東 東新은 亦是百四十圓附近에 安固하고 잇서서 保合은 不變의 事態를 不拘 來月에 버리고 大勢의 方向을 보기 어렵다 新中央政府의 成立은 이것은 完全히 織込되엇섯스나 中央政府 崩落의 이게 될지는 一方 材料難으로 市場을 刺戟할 材料가 업는데 左右間 出現하여야 할 것이다

東新의 利廻는 如左한 推移를 示하고 잇는데 十二年春期의 高價時代와 比較하면 今年에 들어와서는 最低價에 接近하고 잇다 一月에는 五分臺로 減少하고 平年七月에는 九分三厘 十五年一月에는 九分三厘四毛를 最低로 하여 十二年以降의 最高記錄을 示現하고 잇다

(單位 點은 拂込株價各圓 配當利廻各分 株價는 十三年五月까지는 各月月初 現在 同六月以降은 月中平均에 依한것)

十二年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monthly rows through 十五年一月; figures illegible at scan resolution)			

現物區區

現物은 一高一低의 區區한 商狀을 示하여 昂騰된 株에 對하여는 利喰이 나오고 滿洲煙草物에는 買物이 보이어 一、二圓高를 示하엿다 無煙炭은 漸落되어 七十五圓二의 高價를 示하고 冲糖이 砂糖價引上을 好感코 一圓高인 四十六圓三을 示하고 잇섯다

今日現株市勢 (正午調)

◇朝鮮內株式 ◇內地株式 (figures largely illegible at scan resolution)

滿外經濟 廿八日

後場傍觀　後場도 買物이 업시 沈默商狀이엇다

延取 賣買全無 不成

前不成 今朝도亦是 不成

東京國債

▲甲號五分 ▲二十三年物九六、七〇 ▲二十八年物九八、一〇 ▲佛貨四分一九、八

銀行券 廿八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figures illegible at scan resolution)

金利手形交換

◆京城 ◆大阪 (figures illegible at scan resolution)

對外爲替

對米	百圓에 二三弗一六分七
對英	一圓에 一志二片八分一

以上朝鮮銀行發表

株式

◆朝取短期◆ ◆東京短期◆ ◆大阪短期◆ (figures illegible at scan resolution)

生糸

◆大阪短期 取組◆ (figures illegible at scan resolution)

鰮油粕・麥粉

◆阪神鰮粕◆ (十貫) ◆阪神鰮油◆ (百斤) ◆日本麥粉市勢◆ (figures largely illegible at scan resolution)

京城物價 廿九日

◆白米 (一石、單位錢) 七分搗米 小賣公定價

◆雜穀 (小賣公定價 石單位錢)

◇混紡物 (中間販賣價格)

◇人絹物 (單位反、錢)

◇本綿物 (單位反、錢)

◇交織物 (單位反、錢)

◆炭類 (單位錢、但市內價)

◆石油 ◇京畿道檢査木炭

◆洋灰 ◆砂糖 ◆鐵物 ◆木材 ◆牛皮 ◆染料 ◆塗料 ◆紙物類 ◆金銀價 ◇金買入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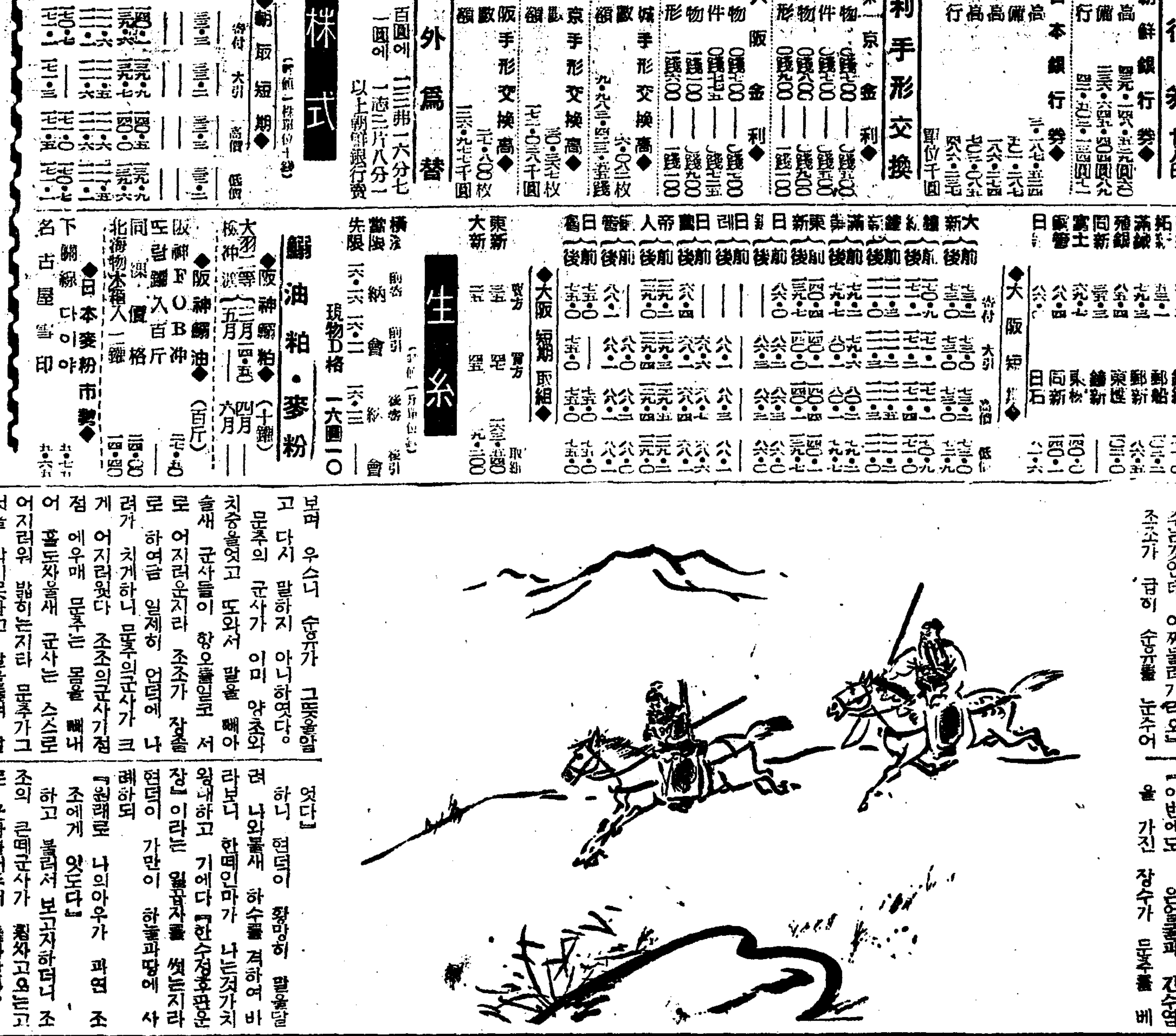
(price entries illegible at scan resolution)

三國志

韓龍雲 譯　熊超 畵

(148)

袁紹逝後와五關斬將



조조가 양초와 치중으로 하여금 하수를 따라서 연진까지 이르게하고 조조는 후군에 잇섯다 불현이 전군의 고함치는 소리를 듯고 급히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하더니 돌아와 보하되

「하북 대장 문추의 군사가 이르매 우리 군사가 다 양초를 버리고 사방으로 흐터저 달아나는지라 후군이 또 멀리 잇스니 장차 어찌하리오」

조조가 채죽으로 양편언덕을 가리치며 말하되

「저기가서 잠간 피하게하라」

인마가 급히 언덕으로 오르거늘 조조가 군사로하여금 다 갑옷을벗고 쉬게하고 말을 노하다 문추의 군사가 이르매 여러 장수가 말하되

「적군이 이르니 급히 말을거두어 백마로 물러가게하라」

순유가 급히 만류하되

「이것이 정히 적에게 이깔을 주는것인데 어찌물러가리오」

조조가 급히 순유를 눈주어 보며 웃스니 순유가 그뜻을알고 다시 말하지 아니하엿다。

문추의 군사가 이미 양초와 치중을엇고 또와서 말을 빼아슬새 군사들이 항오를일코 서로 어지러운지라 조조가 장졸로 하여금 일제히 언덕에 나려가 치게하니 문추의군사가 크게 어지러웟다 조조의군사가 점점 에우매 문추는 몸을 빼내어 혼도싸울새 군사는 스스로 어지러워 밟히는지라 문추가그 것을 막지못하고 말을돌려 달아나거늘 조조가 언덕위에서 가리치며 말하되

「문추는 하북 명장이라 누가 가히 사로잡으리오」

장요와 서황이 말을날려 가치나오며

「문추는 달아나지 말라」

하고 크게 소리치매 문추가 머리를 도리켜 두장수의 쫏차오는것을 보고 드되어 창을거두고 활을다려 정히 장요를쏘니 서황이 크게 부르지되

「적장은 활을쏘지 말라」

하매 장요가 머리를숙여 살을 피하더니 화살 한대가 투구를 마쳐서 투구끈이 끈허지는지라 장요가 힘을다하여 다시 쫏더니 장요의 탄말이 문추의 화살한대를 볼때기에 맛고서 압다리를 꿀코 업더지매 장요가 땅에 떠러젓다 문추가 말을 돌려 다시오매 서황이 급히 큰도끼를두루며 마저싸울새 문추의 뒤에서 군마가이르를 보고 서황이 대적하지 못할것을 헤아리고 말을돌려

엇다」

보며 「현덕이 황망히 말을달려 하니 나와서 하수를 격하여 바라보니 한떼인마가 나는것가치 와서하고 기에다『한수정후관운장』이라는 일곱자를 썻는지라 현덕이 가만이 하늘과땅에 사례하되

「원래로 나의아우가 과연 조에게 잇도다」

하고 불러서 보고자하더니 조의 큰데군사가 휘쫏차오는고로 군사를 거두어 돌아갓다。 원소가 접응하기 위하여 관도에 이르러 진영을베풀새 곽도와 심배가들어가 원소를보고 말하되

「이번에도 관우가 문추를 죽엿는데 유비는 거짓모르는체 하더이다」

원소가 크게꾸짓되

「귀큰도적이 어찌감히 그러하리오」

하더니 조금잇다가 현덕이 이르는지라 원소가 하여금 끄러내어 죽이라한데 현덕이 말하되

「내가 무슨죄가 잇느뇨」

「네가짐짓 너의아우로 하여금 나의 두대장을 죽엿거늘 어찌 죄가업다 하리오」

「그러면 내가 한말을하고 죽겟노라 조조가 본래 나를 끄리는데 이제 내가 명공에게 잇는줄을 아는고로 특별히 운장으로 하여금 두장수를 죽이게 한것이라 그리하여 공을 노하게하여 공으로하여금 나를 죽이게 한것이니 원컨데 명공은 생각하소서」

아울새 문추가 하수를 따라 쫏차오다가 홀연히 보니 다만 십여기가 깃발이 펄펄날리며 한장수가 아페서 칼을 들고 말을날려 오니 이는 관운장이라

「적장은 닷지말라」

크게 소리치되 하고 문추로 더부러 싸우더니 삼합이못되어 문추가 마음에 겁내어 하수를따라 달아나는지라 운장의 청룡도가 빗나며 문추를베어 말아래에 나리첫다。

조조가 언덕위에서 운장의 문주 베이는것을 보고 크게 군사를몰아 엄살하니 하북군사가 태반이나 물에 떠러지고 양식과 마필은 다 도로빼앗서와다 운장이 다만 필리군사 두엇을 이끌고 동으로 치며 서으로 엄살할새 유현덕이 삼만군을 거느리고 이르럿다。

전면의 염탐이 현덕에게 보하되

「이번에도 얼굴붉고 긴수염을 가진 장수가 문추를 베